朝鮮日報
夕刊
十三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伊太利、代表撤還코 理事會를 뽀이컷트

英伊兩國間國交斷絶도不辭

各國代表에衝動多大

【쥬네브十二日發同盟】 에디오피아代表 마리암公使의 聯盟理事會出席問題에 對하야 理事會의 態度에 出席拒否의 聲明宣言을 發하고 自身은 毅然退席하고 退場한 伊太利代表알로이지男은 聯盟理事會의 空氣險惡化에 鑑하야 이經過報告를 兼하야 뭇솔리니首相의 重大指示를 仰請하려고 突然十二日午後羅馬로 向하야 歸國의 途에 올낫다

【羅馬十二日發同盟】 伊太利政府는 十二日 理事會代表撤還을 決定하야 國際政局에 一大波紋을 投하엿는데 今後 理事會에 對한 伊太利政府의 態度에 關하야 政府當局은 十二日非公式으로 如左히 言明하엿다

一、伊太利政府는 聯盟理事會의 伊에紛爭討議에 對하야 『最大限의 留保를 附하야 事實上 同決議를 보이코트할』 態度로써 臨할方針이다

一、英國政府는 現在 聯盟國을 引率하고 所謂 에디오피아政府의 幽靈的存在를 許與하고 制裁強化를 圖하는以上 英伊關係의 惡化는 不免이므로 外交機關의 斷絶도 想像할수잇다

一、右情勢에 鑑하야 伊太利政府는 倫敦駐箚그란디大使에게 對하야 訓令을 發하야 伊太利가 에디오피아를 併呑하야 伊太利帝國을 成立한 事實을 表明하고 英國政府의 善處를 要望할터이다

【쥬네브十二日發同盟】 伊太利代表알로이지男은 政府의 命令에 基하야 聯盟事務總長에게 對하야 十二日午前 代表部撤歸를 通告하고 午後羅馬에 歸還하엿는데 伊太利政府가 突然代表部撤歸를 決意한것은 伊太利政府가 重大決意를 굿게가지게된것이라고 各國代表部間에서 異常한注目을 보내고잇다 (寫眞은 알로이지男)

엿는데 昨年十月三日의 理事會에서 右事項에 關하야 記錄에 남은 諸結論과 矛盾한 [illegible] 伊太利政府今回의 諸行動으로 [illegible] 이어서 [illegible] 米가 [illegible] 原則을 [illegible] 表明하야 [illegible]

[illegible] 時間的、餘裕가 必要하다고 主張하다 理事會는 右議事에 關한 討議를 六月十五日 再開하기로 決定하고 聯盟各國政府가 共同으로 [illegible] 方策에 關하여서는 現在로는 何等決定을 加하지 안는것이 [illegible] 決議에 들어가 에디오피아代表 마리암公使는 率先起立하야 에디오피아政府의 決意를 披瀝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에디오피아政府는 [illegible] 의獨立과 主權과를 [illegible] 할것이다 目下의 [illegible] 에디오피아 政府에 對하야 [illegible] 將來乃至 存立等에 對해서도 重大하고 決定的인 責任이 있다 에디오피아 政府는 이危機에 當하야 理事會는 [illegible] 를 完全히 또는 [illegible] 하도록 希望하며 右決議를 確立하도록 [illegible] 아 마지안는다 紛爭은 [illegible] 間에 끈치지안코 [illegible]

六月十五日까지 延期하는데 [illegible] 智利代表 [illegible] 表明하야다 [illegible] 如左히 述하엿다 [illegible] 理事會는 右 [illegible] 이어서 [illegible] 五時四十分 [illegible] 十二日도 [illegible]

伊에問題審議를 聯盟理事會延期

但、對伊制裁만은繼續

【쥬네브十二日發同盟】 十二日의 聯盟理事會는 午後五時十分부터 爲先 非公開會議로써 開會하고 겨우 五分間으로 議事를 終了한다음 午後五時二十分부터 公開會議에 옴겨 劈頭에 伊에問題의 審議延期에 關한 決議案을 上程하야 이를 採擇하고 同五時三十五分 散會하엿다 右決議案要旨는

理事會는 伊에問題의 審議를 一旦延期하고 다시 六月十五日 特別理事會를 開催하야 이를 審議할것이다 但 休會中이라도 對伊制裁는 勿論 이를 繼續한다

는 旨를 示唆한것이다 그런데 決議案採擇에 當하야 智利代表가 公然棄權을 表明하고 亞爾然丁、에콰도르의 兩國이 모다 留保를 附한것은 特히 注目을 끌엇다

理事會經過

【쥬네브十二日發同盟】 聯盟理事會는 十二日午後五時 聯盟新會館에서 먼저 非公開로써 議長이든外相의 司會下에 開會하고 伊太利代表알로이지男의 撤歸를 確認하엿다 開會와함께 아브놀事務總長은 十二日午後一時 伊太利代表알로이지男과 會見하엿다는 旨를 述하고 如左히 報告하엿다

一、伊太利代表部는 本國政府의 訓令에 依하야 알로이지男의 쥬네브撤歸를 決定하얏다

一、但 알로이지男은 撤歸의意味에 關해서는 何等 說明을 加하지안엇다

다음 午後 五時二十分 議事를 公開하고 이든外相은 伊太利政府撤歸經過에 關하야 簡單히 報告하고 制裁存續에 關한 決議案을 上程하고 理事會의 票決을 要望하엿다 決議內容은 如左하다

聯盟理事會는 伊에兩國의 紛爭을 檢討할 權限을 附與하 [illegible]

新內閣財政政策의動向

今番低金利는 物價騰貴招致

(卅三) 徐椿

다음、低金利가 [illegible] 意味하는것이다。 칠바 影響을 考察하는 意味로 몬저 低金利와 物價와의 關係를 생각해 보면 如左하다。

低金利는 一面으로 物價를 騰貴시키는 作用을 하고、또 他一面으로는 物價를 低落시키는 作用을 한다。即、한가지 原因으로서 物價에 關한 正反對의 兩個作用을 한다。

먼저 低金利가 物價를 低落시키는 原因이 되는 方面을 생각해보면 (一)生産增加 (二)生産原價低下의 두가지를 꼽을수가 잇다。低金利는 貨幣의 利用價値의 低落을 意味하는것이며、同時에 金融緩慢을 意味하는것이다。그러기때문으로 此를 企業家側으로 보면 企業資金의 獲得이 金利低落前에 比하야 容易해 지는것을 意味하는것이다。따라서 低金利는 產業資本家의 擴張을 招致하야 그結果로 商品生産이 增加될터이니까 理論上、生産增加에 依한 物價低落이 잇슬것으로 보는것이다。

다음 企業資金에 對한 金利의 低落으로는 產業資本家自身이 負擔하는것이나 結局은 저 金의 償還와 가치 生産原價에 編入되여 消費大衆에게 轉嫁시키는것이다。故로 金利의 高下는 生産原價의 高下를 招致하는것이다。따라서 低金利는 生産原價의 低下를 結果할수밧게 업는것이다。이러케 보아도 低金利는 物價低落의 一原因이 되는것이다。

이와 反對로 他方에 잇서서 低金利는 物價를 騰貴시키는 作用을 한다。그것은 어떠한 經路를 밟버서 그러케 되느냐? 하면 그것은 이러하다。即 金利의 低下는 此를 本質的으로 생각하면 貨幣資本의 利用價値의 減少를 意味하는것이다。換言하면 通貨가 直接으로 낫는 (生하는) 利潤의 減少하는것을 意味하는것이다。

돈은 돈대로 가지고 此를 運轉하야 生하는 利潤이 減少하면 貨幣資本을 가진 사람들은 [illegible] 利用價値가 적은 돈을 가지 [illegible] 件(土地、建物、證券、商品)을 가지는것이 나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所謂 換物運動、即 『돈으로 부터 物件에의』의 運動이 開始된다。따라서 物價는 騰貴할수밧게 업는것이다。

또한가지 理由를 說明하면 金利가 極度로 低下하면 이에 따라서 國民全般의 貯蓄心이 [illegible] 못할것이다。 [illegible] 勿論이다。

如斯히 (一)生産增加及 (二)生産原價低下의 두 方面으로 생각하면 低金利는 物價低落의 原因이 되는것이며 (一)換物運動及 (二)消費增加의 두가지로 보면 低金利는 物價騰貴의 原因이 되는것인데 今番의 低金利에 잇서서도 이것이 物價에 미치는 影 [illegible] 두方面이 同時에 作用할 [illegible] 된다。何故오 하면 低金利로 因한 生産原價減少는 理論上、생각할수 잇는것이나 實際에 드러서 생각해 보면 商品每單位에 對한 金利負擔은 滄海의 一粟大밧게 더 안되는것이다。故로 이方面으로 오는 物價低落을 事實上으로 바랄수는 업는것이다。

다음 低金利로 因한 生産增加의 方面을 생각해보면 今番 低金利의 目的은 前者 既述한바와 가치 産業振興에 잇지 아니하고、公債消化에 잇다。따라서 公債消化(借換)에 依하야 金融統制를 行하며、許可制의 強化에 依하야 産業統制를 行할것이니까 民間企業의 事業擴張은 工場新設의 마음대로 될수는 업다。따라서 新設又는 擴張에 依한 生産增加를 바랄수가 업스며、그로 因한 物價低落을 바랄수가 업는것이다。

그러나 他方、低金利로 因한 換物運動及 消費增加는 事實로 이러날것이니까 今番의 低金利는 物價騰貴를 招致할 傾向이 濃厚하다는것이다。(續)

反蔣運動의巨頭 胡漢民氏逝去

五十二歲를一期로、波瀾만흔그一生

西南陣容에影響不少

【廣東十二日發同盟】 西南派의領袖胡漢民氏는 十日來 高血壓때문에、廣東自宅에서 療養中이든바 十二日午後六時 昏睡狀態에 陷하야 드듸어 同七時四十五分逝去하엿다 享年五十二

氏는 法政大學卒業後 一九二八年 南京政府가 樹立되자 選拔되어 立法院長이 되엇스나 蔣介石氏와 意見이 對立되어 一九三一年 同職을 辭하고 廣東에서 西南派를 引率하고 反蔣運動을 繼續하엿다 蔣介石汪精衛兩氏와 함께 國民黨의 [illegible] 잇섯는데 蔣介 [illegible] 되어 마 [illegible] 잇섯기때 [illegible] 츰내 中央에 雄飛하지 못하고 몸을 마치다 最近의 外遊後 南北合作의 一方策으로 中央은 常任委員會主席의 椅子를 與하엿스나 依然北上을 不肯하고 廣東에 머물러잇다가 今日에 及하엿다 巨星胡漢民氏 逝去後의 西南派陣容에는 不少한 變動을 不免하리라고 보인다

閻錫山氏

大連에亡命?

【奉天十三日發電通】 當地에의情報에 依하면 [illegible] 山西省撤退를 [illegible] 共産軍 [illegible] 黃河渡 [illegible] 六日에 [illegible] 了하엿슴으로 山西省政府는 共 [illegible] 產軍討伐一段落을 聲明하게되엇는데 右聲明의 裏面은 中央軍의 撤退要求를 意味하는것이나 中央軍으로서는 共産軍撤退後도 依然撤退하지 안을 方針을 取하고잇서서 去就에 窮한 閻錫山氏는 大連方面에 亡命하려고 決意하고 目下 秘密히 사람을 보내 大連星浦附近에 家屋을 物色中이라고 傳한다

秘密會內容漏洩로 出席應諾은困難

陸海軍兩次官의嚴重通達에 富田議長各派交涉會를召集

【東京電話通】 陸海兩次官으로부터 富田衆議院에게 對하야 最近秘密會의 內容이 漏洩되어 非常히 遺憾을 感하므로 今後는 絶對로 如斯한일이 업도록 主意해주기 바란다 萬若 秘密을 嚴守할수업스면 將來 秘密會의 要求가 잇더라도 이에應할수업다고 嚴重한 通告가 잇섯스므로 議長은 十三日午後一時부터 院內에 各派交涉會를 召集하고 이對策을 講究하기로되엇다

로잔느協約國

六月二十二日會合

【쥬네브十二日發電通】 土耳其代表部發表 로잔느協約調印國은 土耳其政府의 要求에 依하야 다다넬스海峽非武裝地帶撤回問題를 審議하기爲하야 來六月二十二日 로잔느郊外 몬로-에 會合하야 審議를 行하기로되엇다

英國陸海空軍

말타島附近서 聯合大演習

一種의對伊的示威?

【라바트十二日發同盟】 英伊兩國關係의 急轉直下的惡化形勢에 따라 英國은 地中海의 말타島를 中心으로 陸海空軍의 聯合演習을 十二日早朝 盛大히 開始하엿다 演習은 二晝夜에 亘하야 繼續施行하야 十四日 未明에 及할터인데 이聯合演習은 表面 말타島의 防禦施設檢討를 爲함이라고 稱하고잇스나 事實은 地中海에 잇서서의 英國海軍의 威力을 示顯하는 同時에 伊太利政府가 리비아地方의 派遣軍을 撤收하고 에디오피아遠征軍의 大部分이 本國에 歸還을 終了하기까지는 戰時編成대로의 姿勢를 維持할 意圖라고 보인다

西南總帥逝去로 統一工作有利展開

國民政府前途를樂觀

【南京十三日發同盟】 國民政府當局은 胡漢民氏逝去에 對하야 아직 公式으로 意見을 發表하지 아니하나 胡漢民氏의 逝去로 말미암아 蔣介石氏의 統一工作促進、反蔣運動瓦解도 有利하게 展開될것이라고 表面 沈默을 지키고잇스나 比較的 樂觀하고잇다

汪兆銘氏外交部를通해 抗日言辭無根辯明

【南京十二日發同盟】 汪兆銘氏가 레일허블드紙特派員에 對하야 日本에對한 軍事的抵抗이 不可避하게되엇스므로 中蘇條約을 締結하야 共産軍討伐을 中止하라」云云이라고 語하엿다는 報道에 對하야 汪氏는 十二日 外交部를 通하야 如左히 辯明하엿다

허블드特派員과는 誼實히 會見을 하엿스나 上述한問題에 對해서는 아무 問題도 興하지 안핫다 如左한 報道는 事實과 相違되는것이다

胡漢民氏略歷

胡漢民 字 展堂

日本法政大學卒業 孫文氏를 따라 一九〇五年 東京에서 中國同盟會에 加入 歸國後 汪兆銘氏와 協力하야 香港에서 『民報』를 發行하야 革命思想鼓吹에 努力하다가 民報가 發行停止處分을 當하자 汪氏와가티 新嘉坡에서 『新聞』을 發行함

一九一一年 武昌에서 革命運動이 일어난後 廣東獨立을 宣言하고 廣東都督 陳炯明에 就任、一九一二年 南京臨時政府成立時에 臨時大總統秘書長이 되엿다가 同年 南北妥協後 孫文을 따라 廣東에 도라가서 다시 廣東都督에 就任、一九一三年 第二次 革命運動 失敗後 日本에 亡命하야 孫文을 도아 討袁運動에 奔走、一九一六年 上海에 돌아가 陳其美暗殺된後 同方面의 黨員의 指導에 當함

一九一七年 廣東에 非常國會가 招集되야 孫文이 大元帥就任함에 大元帥顧問兼秘書가되다

一九一八年 廣東政府成立됨에 미처 軍政府參事會秘書長으로잇다가 陳炯明이 廣東을 侵入하자 孫文과가티 上海에 逃亡하얏다가 一九二〇年 廣東軍政府가 復活되매 軍政府最高顧問就任 兼 廣東省長 廣東大本營總參議等歷任

一九二四年 國民黨改組後 第一次中央執行委員會 常務委員兼宣傳部長이 되얏다가 同年孫文이 北上한後 廣東에서 大元帥의職權을 代行함

一九二五年 廣東에 國民政府가 組織되자 外交部長에 就任하얏스나 廖仲愷暗殺事件의 嫌疑를 바다 廣東을 떠나 蘇聯에 逃亡하다

一九二六年 廣東에 돌아왔스나 그 蔣介石氏와 反共的立場이 相容되지 아니하야 香港에서 反左派運動에 從事

同年 國民黨第二次中央執行委員會委員에 被任

一九二七年 蔣介石一派가 南京에 國民政府를 樹立하자 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政治部主席兼委員으로 南京에서 武漢의 國民黨左派에 對抗하다가 下野하엿더니

同年 武漢 南京合體後 中央特別委員會兼國民政府常務委員 同軍事委員會主席團委員 中央黨部宣傳部主任에 被任

一九二八年 國民政府 立法院長에 就任하얏다가 一九三一年 反蔣態度를 表明하얏다가 南京에서 監禁됨

同年末 廣東南京의 妥協이 成立되자 解禁되야 國民黨第四次中央執行委員會常務委員 國民中央執行委員會國民政府委員 國民政府立法院長에 就任

一九三二年初에 蔣氏一派와 意見이 對立되야 國民黨 中央執行委員會、國民政府 常務委員을 拒否하고 廣東에서 國民政府에 對하야 西南政府를 形成하고 잇스면서 今年에 다시 國民政府에 [illegible]

十三日葬儀擧行

【廣東十三日發同盟】 十二日 急逝한 胡漢民氏의 葬儀는 十三日午後 中山紀念堂에서 行하기로되엇다

盧에乘하야蔣氏 統一政策에邁進

【上海十三日發同盟】 中央과 西南派와의 關係가 자못 떨리게 되는 [illegible] 動하고잇는때에 胡漢民氏가 急逝한것은 中央政界에 異常한 衝動을 與하엿다 蔣介石氏는 胡漢民氏를 失한 西南派의 動搖를 巧妙히 捕捉하야 統一國策에 積極的으로 進出하야 이것을 機會로 一擧에 中央西南統一을 成就할것이라고 注目되고잇다

密輸撲滅運動開始

內務、外務兩省에陳情

【東京電話通】 各航路의 密輸는 最近에도 終息될 模樣도 업스므로 十二日 海運界의 有力者로 協調機關인 海事共同委員會 定例會에서는 密輸는 單히 船員의 品位를 低下할뿐아니라 船主의 信用을 毁損하야 海運界의 海外進出을 阻止하는것이라고 드듸어 密輸撲滅運動을 開始하기로 決定하고 十三日 日本船主協會 海員組合 海員協會의 名義로 內務省과 外務省에 陳情하야 內外의 密輸品의 賣受人取締要請하는 一方 船主에서도 船內搜查를 行하야 碇泊中에는 監視를 嚴히하고 密輸發見者에 對해서는 賞與金을 주는 外에 社會大衆黨으로부터 適當한 時機에 議會에 提案하기로 되엇다。

로카르노條約國

會議開催를延期

【쥬네브十二日發電通】 十二日午後三時부터 佛國代表部 宿舍에서 로카르노 條約關係國代表의 會合이 開催되어 불-佛代表、이든 英代表、방·질랑白代表의 三氏가 出席하야 여러가지로 協議한後 로카르노條約關係國會議開催를 六月까지 延期할 件을 決定하고 同四時 散會하엿다 右會合에는 關係國伊太利代表 알로이지男은 出席지아닛다 會合終了後 如左한 콤뮤니케가 發表되엇다

獨逸의 覺書中 某部分에 關해서는 다시 說明을 求할 必要가 잇스므로 로카르노條約關係國會議開催를 延期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엇다

十年度租稅收入

六千三百五十萬圓

總督府十年度租稅收入은 未徵收分을 除하고 六千三百五十四萬一千圓으로 十年度公布豫算에 比하면 實로 一千二十七萬五千圓에 增收를 示하야 前年度實績에 比하면 七百四十一萬二千圓 即 一割三分의 激增으로 好況을 如實히 表現하고잇다 그런데 各稅로서 보건대

所得稅는 八百五十四萬圓으로 三百萬圓 酒稅는 一千九百五十八萬四千圓 營業稅는 百八十四萬七千圓으로 二十八萬四千圓、鑛業稅(金銀을除함)는 百七十二萬圓으로 三十三萬圓、砂糖消費稅는 百七萬七千圓으로 四十三萬四千圓、關稅는 一千三百二十二萬四千圓으로 四十九萬六千圓이 모다 前年의 實績에 比하야 增加하엿다

右外에 臨時所得稅가 二十六萬八千圓에 達하고 其他稅도 幾分增加하얏다 다만 農村振興에 基한 地稅改正에 伴하야 地稅가 九十六萬圓減少된것과 朝鮮銀行의 限外發行稅가 업는것이 注目된다 그리고 未徵收八十萬圓이 될모양이다

人事·集會

▲李鍾氏(東亞日報記者)十三日京畿道楊平郡龍山面(公興里自宅에서遭外艱

▲朱貞順氏(鮮光印刷株式會社社長)新任人事次十三日來社

▲金敎英氏(同專務兼支配人)同上

▲金容圭氏(同營業部長)同上

八面鋒

◇

貴族院改革問題를 貴族院自身이 滿場一致로 可決

◇

봄이되면 春雨도 自慢하다드니가 非常時風景의 一幅으로 보아두면 그만。

◇

一方、衆議院에서는 議會肅淸의 先聲만 놉고 이러타할 實行이 업슨은 웬일。

◇

農村을 背景으로하는 政友會、都市를 地盤으로하는 民政黨이니 背景과 地盤을 改革하기 前에는 열번肅淸을 떠들어도 실텐데 다름이 업슬가。

◇

實質의 고개도 그럭저럭 넘것스니 이제는 安心이라고 政府는 安堵。

◇

非常時內閣으로는 實行力이 적다고 政黨側은 悲觀。

◇

胡漢民氏 突然逝去、西南派의 損失이라는것보다는 新生中國을 爲하야 哀悼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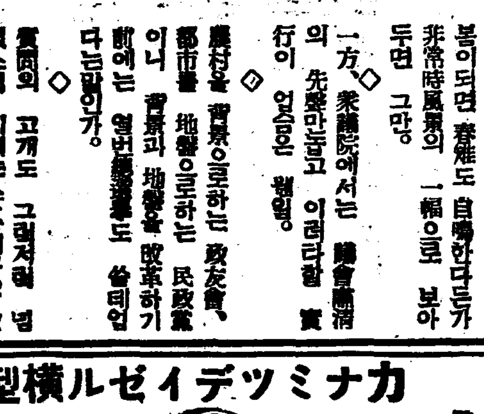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平和堂 二劑十円

リンチオネ 링
질
一般婦人의 帶下、痔疾의 根治劑로서 本劑는 武藤、宇佐美兩醫學博士推獎의 最新藥ネオチリン의 服用을 推獎한다。本劑는 當研究所가 加藤醫學博士와 共히 幾多의 實驗을 重해 苦心研究의 結果完成된것으로서 殺菌力이 가장 強하고 急性慢性의 淋疾은 勿論 帶下、痔疾症도 [illegible] 消한다 (禁法贈呈) 二圓、三圓、五圓、十圓
京城本町四ノ二六 株式會社 木村 藥房
兵庫縣細川 電淡河 株式會社 山本藥劑所
全鮮藥店百貨店에 잇슴

恩給 五年分以上最低利長期立替 借換歡迎 乞照會
京城中學町一七 女師前 金玉商會

當選謝禮
今般明川郡花臺金融組合役員改選에 際하야 有權者諸位의 深厚하신 後援으로 當選의 榮을 蒙한 吾等은 茲以紙上으로 謝意를 表하나니다
昭和十一年四月二十一日
監査 南致薰 許動哲 金成弼
評議員 徐才豐 趙仁鍾 崔乙鳳 金日源 董泰鳳 金斗演 朴昌煥 金九郁 玄東昱 金鳳昊
(無順)

カナミツデイゼル横型
▲小型ディゼル 重油機關出現
燃料費 電氣使用費의 半額
一日、八馬力에 約八十錢



石油式發動機、籾摺、精米製粉、精麥機揚水ポンプ在庫豊富
朝鮮總發賣元 森田商會機械部 釜山大倉町四丁目 電話 釜 三六四五 四六七
各地特約販賣店募集

問訪土鄕歌手의 一 隨島半
蔡奎燁演奏會
場所 府民館
會費 金五十錢
日時 五月十六日(土) 午後七時 開演
映畵封切 콜럼비아超特作 月光暝想曲(七卷)
(舞踊賛助出演)

失火慰問謝禮
拜啓 昨夕弊社出火時에 火急히 來訪하서서 消火에 盡力하여주신것을 感謝하여 마지안습니다 그러고 諸位의厚意로 類燒에서 곳鎭火하야 機械의損害는 거이 업슬뿐만아니라 다고하여도 極少한것으로서 諸位의 無窮한 盡力의 所以라고 생각하야 一同은 感謝不堪하는 同時에 一히 拜謁하와 謝禮를 올려야할것을 罪悚하오나 紙上으로 厚意를 感謝하는바입니다 敬具
追而 本日부터 從前과가티 營業을 繼續하옵니다
昭和十一年五月十一日
京城府堂山町三一三番地
朝鮮皮革株式會社
電話 二五·二六番

創立明治參拾貳年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 京城南大門、同鍾路、同東大門、同本町二丁目、同本町四丁目、龍山、仁川、平壤、海州、開城、全州、裡里、長湍、大邱、統營、馬山、鎭海、釜山本町、同牧ノ島、同富平町、同草梁、麗水
出張所 里院、信川、新義州、定州、平壤、同大同門、鎭南浦、沙里院、元山、永興、咸興、端川、淸津、羅南、會寧、雄基

朝鮮声画의 全發声映画
最高水準
아리랑 三
朝鮮映畵最高水準을突破한 雲韻의 代表作、前作아리랑은 別格을쌓엇스며 技術로雲泥의 進境을보여주는 春史畢生의 勞力作品。
尹逢春 田澤二 車相銀 玄芳蘭 南宮仙 金德心 助演
監督·脚色 原作·監督 羅雲奎
主演 羅雲奎 申一仙
佛GG大超作그 라노스키氏 主演 美貌三女、大衆化된 쥬의에 ……피렌체의 …… 벗니아 …… 主演 라…… 아리아
콘모의 一夜
十四日封切
鄕團成社
廿世紀폭스超大作映畵 東道
純情이엉기여 [illegible] 에서獲得하얏다가 [illegible] 純情하기짝이업는處女의半生을 描寫하야 永遠이 [illegible] 되는 感激의 新作
헨리킹監督作品
主演 쟌넷·게이너 윌·로져스
原作 코로·아리우·카나우 ·시에 映畵化

官公吏瀆職激增 今後는더욱嚴罰
昨年一千三百卅四名檢擧中 首位는平南의卅件

근래에 관공리의 독직(瀆職)사건이 빈발하야 총독부에서는 루차 지방청에 강긔숙청에 관하야 엄달하여왓다 그러나 의연히 관공리의 독직사건은 격증하는한편임으로 총독부에서는 사법당국과 련락하야 엄벌주의로 나아가다 한다 그런데 작년중의 소위공무원(公務員)의 범죄에 관한 당국의 통계를보면 다음과갓다 공무원의 독직혐의로 검거된총인원은 일천삼백삼십사명인데 그중에 면직원이 사백내명으로 가장만코 그다음은 경찰관원이 백십오명 부군도(府郡島)직원 일백이십명 의원(醫員)일백사십칠명 총독부내 십륙명 세무서원 삼십명 등이 만흔터이다 그리고 전긔검거인원중에서 긔소된인원을 보면 이백십오명으로 각도별로보면 다음과갓다 ▲京畿二〇 ▲忠北七 ▲忠南一三 ▲全北一二 ▲全南一三 ▲黃海二〇 ▲慶北一一 ▲慶南二一 ▲平南三〇 ▲平北一六 ▲咸南一一 ▲江原一七 ▲咸北二五 이외에는 긔소유예로된 범죄의 정도가 미약하거나 또는 정상(情狀)에 고려할점이잇서 불긔소되거나 또는경찰에서 석방한것이라한다

술취한憲兵이 軍刀로老婆에暴行
射擊場附近에松葉극다가 江界憲兵隊員이

【江界】 련발하는 강계헌병대(江界憲兵隊)의 불상사—지난달십삼일 굴미상등병(堀尾上等兵)의 권총자살사건이 아직기억에 살어지기전 또술취한헌병이 늙은 로파를 군도(軍刀)로 란자구라하야 치명적중상을 입힌사실이 발생되엿다 사건의경위를 듯건대 전긔권총자살한 굴미상등병 후임으로 최근부임한 헌병중진랑부(中津良夫)(二七)상등병은 지난구일 헌병창립기념일(憲兵創立記念日)강계읍남산밋사격장(射擊場)에서 열린사격회에서 술을 먹고 사격부근의솔닙을 감시하든중 오후륙시반경 위험지대 경계선부근에서솔닙을 긁고잇든로파를만나「피하라」명하엿스나 언어가통치못한관계로 로파는즉시피하지못한모양인데 이에헌병은 흥분됨에 위협하든남어지 칼로 로파의면상과두부를 란타하고 발길로 차서 혼도된것을 꼭중으로 얼거매여 끌고 새거리(江界西部新市街)인가근처까지 나려온것을 동민의신고로달려온 동료들에게 제지되여 피해자를 급히 강계도립의원에운반하야 치료를 바닷든데 면상에 삼개소 후두부(後頭部)에 일개소 칼로깁히찔린 인흔(刃痕)이 잇고 외에타박상은 칼등으로 마저 절골되엿슬뿐만아니라 출혈로 맘미암아 혼수상태에 이르럿는데 피해자는 강계읍서부동 삼백칠십오번지에 거주하는 홍기수(洪基洙)라는사람의 어머니 김씨(金氏)(六七)이라고한다

洋服店外交員詐欺

창신정(昌信町)륙십사번지 차진경(車辰景)(二○)은 수일전부터절도 혐의로 본정서에서 취조중이라는데 그는 일즉 황금정(黃金町)이정목빠·데루선이란 로서아 사람양복점의 외교원 노릇을하면서 주인업는틈을 타서는 양복을 싸게파러서 그대금을 횡령하야 유흥에소비하는외에 양복점의교원전문으로 절도행위를 거듭하엿다는데 피해는 약이백원가량이라한다

맘검은同宿人 마침내本町署에

수일전 다옥정(茶屋町)사십팔번지 량옥려관(梁屋旅館)에 투숙하고잇든 김창복(金昌福)(三二)은 동숙하고잇든 성련석(成麟石)의 지갑을 훔처 행방을 감추엇스나 지명수배중 십이일 본정서에 인치당하엿다는데 피해는 삼십사원이라 한다。

서양보고自殺

시내종로(鍾路)오정목사백십십사번지 리금봉(李今鳳)의처 박씨(朴氏)(二二)는 열이튼날 오후에 강초(酢酸)를마시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알고 부민병원에 담어다가 응급수당을바덧스나 원체 만히마섯기때문에 식도염(食道炎)을일으키여 려시오십분에 드듸여절명되고마럿다고하며

술이라면生命도
술갑拒絶當코 割腹自殺(未遂)

빼-루병을 깨트려 배를갈라 자살을할라다가 류치장에서 꿈속에서세상구경을 하는 친구의 이야기

시내한정(韓町)사십칠번지 십사호에 사는 전과삼범 김필현(金弼鉉)(三一)은 십이일 밤부터 의입에 궁하야 종로(鍾路)이정목빠-소바메에서 구원어치가량의 무전취식을 한후십삼일오전다섯시쯤 술갑새 궁하야 죽첨정(竹添町)이정목에서 매부되는 홍준표(洪俊杓)가 경영하는 「빠-모나코」에 와서 전기 홍씨에게 술갑을 강청 하엿든바 이십여번 어나 여러번 경우를당한 그는대번에 거절 하엿든바 김은 그자리에잇든 빼루병을깨트려 배를갈르며 일대소동을일으켯슴으로 급보에접한 서대문서원이 곳이닷치하야 방금동서에류치중인데 전치약이주일 경상처를 바덧다한다

水王産婦人科 醫學士 李麟杰

運動競技
朝鮮體育會의 今年事業案
十四種目의大綜合競技大會 拳鬪、卓球、排球等追加

朝鮮體育의總本營인 朝鮮體育會는 今年으로서 創立十七週年을 마지하야 例年보다 一層規模째인 各種事業을遂行코저 各部責任者들은 그準備에沒頭하고잇는바 오는十六日의 定期總會를압두고同理事會에서는 다음과가튼事業案을 作成하야總會에提議하기로되엿다 그리고今年度부터는 會員을 大大的으로 增募할터이라는바 會員募集委員으로 다음의 諸氏를選定하엿다한다

一、會員募集委員 金圭冕、呂運弘、金顯九、金東轍、朴宗薰、崔在煥、鐵南龍、朴準鎬諸氏

◇今年度事業案

▲五月廿九日 第五回全朝鮮籠球選手權大會

▲八月中 第七回水泳講習會

▲九月中 第十七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新으론新種目 蹴球、野球、庭球、拳鬪(新)씨름、力技、卓球(新)籠球、排球(新)레비ㅣ、陸上、水上、柔道(等十四種目)

▲昭和十二年一月中 第十七回綜合氷上選手權大會

▲同四月中 第五回全朝鮮마라손大會

體育會定總 十六日府民館서

朝鮮體育會第十七回定期總會는 五月十六日午後三時부터京城府民館小講堂에서 開催할터이라는바 會員諸位는 無漏參席하기를 바란다고한다

◇討議事項

一、昭和十年度事業報告

一、昭和十一年度事業案

一、昭和十一年度豫算案

一、各種選擧의件(其他重要事項)

佛專主催 中等庭球戰 六月六、七兩日間에

中央佛敎專門學校主催와 本社運動部後援의 第二回 全朝鮮中等校 庭球大會는 來六月六日(午後一時)과 七日(午前九時)의 兩日間 明倫町佛專코ー트에서 擧行할터인데 主催側에서는 벌서부터 準備에 奔忙中이라하며 同大會의 部署는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한다

◇大會委員

▲會長 金敬注 ▲顧問 朴勝彬 金斗憲 ▲審判部 朴成熙 裵成敎 吳明淳 李允祚 宋在寬 高鳳梧 ▲庶務部 池大進 張元圭 金三龍 ▲記錄部 金鍾鎬 金龍成 崔士文 金鍾淳 桑著 ▲接待及準備 朴永逵 金泰煥 李正秀 高凡龍 成顯玉 金四祚 金魚水 ▲宣傳 李允祚 李基在 宋在寬 金上奉 金鍾淳

普成校內陸上大會

普成高普第十四回 校內陸上大會는 十七日午前八時부터 同校運動場에서 開催하기로 되엿다한다

〃〃〃〃 京城풀廿日에開場 〃

京城運動場에 잇는 所屬풀은 오는二十日부터 一般에게 有料開放하기로 되엿다한다

北朝鮮마라손經過

【咸興】 咸興體育會主催의 第一回北朝鮮마라손大會는 지난九日快晴한 天氣에 二十一名의選手가 參加하야 同日午後一時에 咸興公設運動場을出發하야 다음과가튼 成績으로 吳承默君이 優勝의 榮冠을 獲得하엿다

1、吳承默 三時間十分四十五秒

2、沈在福 三時間二十四分二十秒

3、崔炳高 三時間二十八分二十秒

4、金基福 三時間三十一分二十秒

5、金晉奉 三時間四十一分

京城保育學校 十周年記念行事
十五日、落成式과音樂會로

시내 청진정(淸進町)에잇는 경성보육학교(京城保育學校)에서는 십오일 오전열한시부터 동교강당에서 창립십주년긔념식과 신교사락성식을 거행한다는데 동일오후여덟시부터는 긔념축하음악회도 개최하리라고한다

本社主催 産業視察團 오늘저녁귀경

본사주최 제이회산업시찰단(産業視察團) 일행은 지난달이십사일 경성을출발하야 구주(九州) 관서(關西)관동(關東)각지의산업을시찰하고 이십일만에 십삼일 오후칠시 이십오분 경성역착열차로돌아올예정이라

卅八萬圓豫算으로 九道에外事課新設
一般外國人의往來도徹底히取締監視
各道高等警察은縮小方針

경무국에서는 고등경찰확충에 관한 추가예산삼십팔만여원을 이번의회에 제출하엿다함은 긔보한바와갓다 그런데 이번에 확충하는 고등경찰의 내용은 거의 전부가 외사경찰의확립과 그확충이 목적으로 경비전화의신설과 충신들은 국경지대와 중앙과의 련락을할것이며 경관의증원도전부 외사경찰을 당함에충당할것이라한다 그리하야 경무국에서는 이것을 긔회로 고등경찰의 규측을 쇄신개혁할터이라는데 현재각도의고등과에서 취급하는 외사경찰관계는분리하야 각도경찰부에 외사과를 독립식힐터이라한다 그러므로 경무국보안과에다가 외사계(外事係)를두고 각도에는 외사과를 신설할터인데 금년에는위선 경긔도 평남북 함남북 강원도 경남 전남북등지의 중요도에 설치하야 금후각도에 전부신설 할터이라한다 과장에는 중요도에는 정식과장을 배치하되 이번예산에는 경시두명밧게 통과안되엿슴으로 현재의 경시고등과장을 외사과장으로 전임식히는동시에 각도의 고등과는 외사과와 능력에 의하야 그인원과사무가 축소될터이라 한다 이와가티 외사경찰의 확충에따라 재류외국인의 취체와 래왕하는외국인의 단속은물론 기타 군군마다비밀의보지(保持)상필요한모든경계를충분히할터이라한다

十歲의少年洋畫家 美展에堂堂入選
漢川普校四年生 金淸桂君

【平壤】 금번 열닐라게안된 평원군한천면감팔리(平原郡漢川面甘八里) 동경의원장(東京醫院長)김연후(金演垕)씨의 아들 한천 공립보통학교(漢川公普)사학년생 김청주(金淸桂)군이 이번 미전양화과에 화속(花束)을 출품햇든바 당선의 소식이 도착되엿다。 여섯살부터 양화를 그리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럿고 시험삼아 출품햇든것이 당선되리임으로 자긔동리에서는 신동(神童)이라구까지 불으고잇는 천재라고한다 따라서 압흐로 큰긔대와 촉망을 가지게한다。(寫眞은 少年畫家·金淸桂君)

猛炎中에뛰어들어 幼兒四名을救出
집보든아이들 불작란으로出火
어른一名은重傷

【海州】 지난륙일오후오시삼십분경 곡산군화촌면 청령리(谷山郡花村面靑嶺里)십팔번지호 고상영(高尙榮)(三〇)은 자긔집에장녀 충실(忠實)(七)을비롯하야 장남경성(慶星)(三)등 네어린애를 남겨두고 가족들과함께 부근밧(田)에 나아가서 일을하고잇는 때에 어린애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부엌」에서 불이일어나 때마침 세차게부는바람에 전긔가옥전체는 맹렬히타고잇고 집안에서는 전긔아이들의 부르짓는 비명이 들려나옴으로 전긔가족들은 위험을무릅쓰고 화상(火傷)을입어 가면서 불속에 파무친 집에뛰어드러가 빈사의 상태에잇는 어린애들을 겨우 구조해내엿스나 충실(忠實)은 그익일 오전두시경에 경성(慶星)과 경희(慶熹)(二)등 두명은 동오시경에 드듸여 사망하고 전긔고상영의형수되는김씨(金氏)는 안면(顔面)과 밋두손에 큰화상을 입어 의식불명상태에 빠지엇다한다

課稅範圍擴張으로 各階級에負擔增加
特히細民層生活에影響重大
京城府戶別稅等級査定完了

종래의 부세(府稅)로되엿든것이 도세(道稅)로넘어가면 과세표준도 종래보다 범위가늘어저서 일반적으로부담이 만허지게될 문제의 호별세(戶別稅)에대한 경성부내의 등급사정(等級査定)은그동안약일주일간을두고 경성부회를 열고십일중 십일일까지에끗낫다 그결과에의하면 금년의납세인원은 전부 륙만이오천백칠십사인인데 그중 구구역내의인원은 오만삼천륙백구십삼인 신구역내의인원은 팔천구백십오인이고 그중에서 조선인만을보면 구구역내에 오만오천삼백팔십사인 신구역내에 칠천구인 합계 십만이천삼백팔십사인이다 세액을보면 도세로 밧게될 약이십만팔천원이고 부세로 들어올 호별세부과세가 이십만팔천원이고 제일부특별경제부과금이 약사십이만칠천원, 제이부특별경제부과금이 약이십구만팔천원이되다 또 응금의루진(累進)은자력표준액이 삼백원에서오백원까지는갑등으로간에 삼(三)으로루진하엿고 오백오십원이상 팔백원 까지에는오(五)로 루진하엿고 팔백원에서 일백이십원까지는 륙(六)으로루진하여 그이상은 더루진률이놉하가게되엿다 그러고 이번호별세와 부과세는 종래자력표준이 오백원이든것을 삼백원까지로하고 등급도 종래륙십륙등이든것을 일백이십등으로하고 또우으로도 종래등급을 나누어 노케되엿슴으로 종래보다 우으로재산들의 부담도다소 놉하지러니와 아래세민 계급에는 부과인원이더 광범한범위에까지 밋치게되여잇서 종래호별세와 동부과세를면내든계급에서도 도세와 부세부과세와 특별경제부과금(공공비)등 세가지로내이게되여 세민급에는 상당한 영향이 잇슬것이다 또납입고지서(納入告知書)는 금월말경에는 나가게 되리라한다

虐待하는男便거러 안해가自進離婚
一審勝訴、二審敗訴、上告까지 法廷에나타난새現象
暴君男便에警鍾!

남자편은 리혼안하겟다는데 녀자편이 긔어히 리혼하겟다고 고등법원에 상고까지하여온 사건이잇다 부내 죽첨정(竹添町)삼정목사백이십이번지 변긔옥(邊基玉)은 그의남편인 부내여정(麗町)구십번지 김수명(金壽命)을 상대로 피고는 원래 성질이 란폭하야 원고를 몹시 학대함뿐만아니라 소화구년 십이월께부터 대구(大邱)사는 남만희(南晩姬)라는 녀자를 알게되자 일홍 더 원고에게 몹시구려 작년 사월십오일에는 원고를 친정으로 쫏처내며 원고의 어머니에게 모욕까지 주어 도저히 그런 남편과는 생전가티 살수업스니 피고는 리혼을하는동시에 원고에게 위자료천원을 주도록하여달라고 작년시월이십이일 경성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긔하야 지난 이월팔일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와리혼하는동시에 위자료삼백원을주라는주원고에게 승소판결이 내리엿다 이판결에대하야 피고 김수명은 자긔는 원고를 학대한일도업고 남만희와의 관계는 다만동무로서 편지를 서로하는정도에 불과하더로 원고와 리혼하려는생각은 업다고 경성복심법원에 불복공소한결과 이심에서는 지난사월륙일 부부간에 잇슴직한 가벼운 싸움으로 말미암아 남편인 피고는 리혼할생각이업다는데 안해인원고가 리혼하려는것은 원고의 장래를위하여서 뿐만아니라 원피고간에 난 어린딸의장래를 위하여서도 조곰도 리익이업스니 원피고는 서로참고부부 생활을 계속하라고 원고에게 패소(敗訴)판결을내리엇다 이와가티 일심에서는 이기고이심에서는 진 원고는 긔어히리혼하겟다고 십이일고등법원에상고하여왓는데 조선에서는 아직도 녀자편이 적극적으로 리혼하겟다고 주장하는소송은 작은만큼 그의판결여하는 자못일반의주목을 끌고잇다

老妄부리는炎帝의作戲?
酷暑卅一度二分
咸興은宛然三伏!

【咸興】 어이-출다、느진봄이되엿든데도 날세는의연 추의를계속하야 어느때나 따뜻한봄날세로 풀릴는지 추측할수업는 천긔이번에 일반의경이(驚異)를자아내고잇든 요지음 함흥은 또 웬 조홧수의 히롱인지 갑작히 더위가 닥처와서 십일일부터십이일까지는 낫중에는 최고 삼십일도이분이란 찜녀름에도 보기드문 혹서를뵈엿스며 거리거리에는 이똣하지아니한 더위에 눌려 갑작히 맥이풀린듯한 긔운업는 거름거리를보여주엇다 이더위는 십이일경까지 계속한다음에는 다시비로변하야 과연도평상시의 십여도내외로 내려갈것이라고하며 어떠튼 오월중에 이러케더운것은 고금에처음이라고말한다

團體動靜(十三日)

▲新義州高等普通學校 六十五名退京

▲京城女子高等普通學校 百二十三名歸京

▲黃海道郵便所長團體 四十五名入京

▲大邱壽道普通學校 百十名入京

▲平壤鍾路普通學校 二百名入京當日退京

▲野砲二六聯隊將校 二十名退京

▲華山普通學校 百三十名入京當日退京

▲永登浦普通學校 二百五十名入京當日退京

▲日本農業新聞主催 朝滿視察團二十名退京

▲麻浦普通學校 百三十名入京當日退京

▲麻西普通學校 三十名退京

▲關東州會員視察團 十一名入京

▲嘉納合名會社 六十名入京

▲大正水利組合農事視察團二十名退京

▲文殊小學校二十四名入京

▲福岡工業學校百十九名入京

天氣予報

豫報 今夜 京城地方은 개엿다흐렷다하며 明日도갓호며 京畿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二六、七
同	最低	一〇、八
今朝	最低	一五、〇
今日	正午	二三、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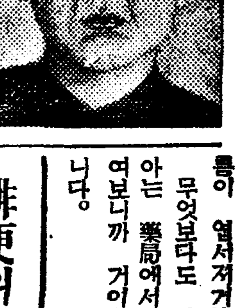
注射로根治할수업는梅毒이 酒煙草의毒과混合하면「瘀血」이되여
上氣 眩氣부름으로苦痛하고 耳鳴·肩臂痛으로苦惱한다
瘀血(오혈梅毒)을업시하면無毒이되여 알아볼수업스리만치健康하게된다

瘀血療法創見者 前警視廳 吉原病院 小屋良明先生談

梅毒治療法이 進步된今日에는普通 日처럼 鼻頂에 구멍이뚤리거나 〰코가업서〰지거나 (下圖參照)하는 外形的으로 甚한것은 업서진代身 〰血液檢査〰로서는 陰性이 되는것이普通입니다 그러나「瘀血」로變質한 綜合毒은 單純한梅毒보다 훨신毒性이猛烈하야 血液中에 存在하는關係上血流를따라 全身에 떠저서 到處에慘害를 주는것입니다。 四十을지난 中年初老期男女의 腦와心臟이 侵犯되는분이만어 적습니다 그것은 驅梅療法으로 無理하게 病毒을 抑制하면毒이 體內에기피潛入하야 一見全治한것가티 보이는故로 普通人은 이곳에서 治療를中止하지만 多少라도남겨두는毒은 血液을 根城으로 盛히繁殖하는一方 酒煙草의毒 尿毒等과 얼키어서「瘀血」이되여 梅毒으로서의 反應을 나타내는故로 梅毒療法이 만코 腦梅毒을原因으로其中에는 發狂하는것까지도잇고도腦溢血、狹心의發作가됨니다 〰動脈硬化〰高血壓이「瘀血」을 原因으로 한것은 말할것이업습니다。 그런故로「瘀血」의存在를 證據하는 頭重、耳鳴、눈이흐린것、肩痛、부룸、喘息、上氣、動悸、婦人의 血道、히스테리、月經不順等의 慢性病症狀으로 煩悶하는분은 速히 이두려운「瘀血」을除去하야 無害로될것이 必要합니다。

顏面及頭部梅毒性癌

頭重과耳鳴、肩臂痛도낫고 惡性梅毒이快癒



熊本縣 田口良一

(前略)フルチ錠을服用하기始作하야 今日까지 一個月이나됩니다 最近五六日間은 以前보다도 더몸이 不便하여 一時는中止할려고하엿지만 藥의反應인가 생각하고 繼續하는中 次次效果가 나타나서 其後머리도 퍽가볍고 耳鳴도 中止하야 얼골과등의부룸이 열서저거始作하엿습니다 무엇보다도 깃븐것은 昨日잘 아는 藥局에서 血壓을 計量하여보니까 거이常態로 떨러젓습니다。

排便의變色과 瘀血

粘膜보다도무서운毒性으로 全身循環系를거칠게하는「瘀血」을中和分解하야 便通(黑便)과가티體外에排泄하는 小屋先生創製의フルチ錠은古醫學의 眞髓와現代醫學의理論과 一致한新解毒順血劑로서大端한好評을 博得하고잇슴으로 永年慢性病으로 困難을바드시는분은꼭 瘀血을除去하야 血行을整齊하고 黑便이나오게안토록까지保養하시면 自然히健康해지시는症狀을快癒식힘니다。

古醫學에서新發明

나는 吉原病院奉職中 만흔有毒患者의診療에 苦心하야 그것이 古方醫學入門의 動機가되여 이 綜合毒素인「瘀血」의 研究에 沒頭、古醫書의 讀破는 勿論거마리의 依한 瀉血法、破血劑에依한內服療法等모-든古來의 治療法을 現代醫學을 基礎로한 再檢討는 가장科學的으로 副作用이업고 이「瘀血」을 體外에 排泄하는 新療法에 成功하야「瘀血療法」으로서 斯界에 發表하엿습니다 나의研究가 煩悶하는분의 治病에 一助가되다면多幸으로 생각하겟습니다。

排毒順血에 非常한好評

吉原病院 前警視廳 小屋良明先生創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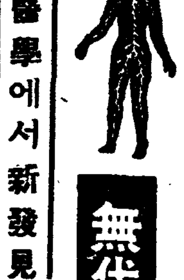
フルチ錠

主治 動脈硬化 神經衰弱 中風 腦溢血 心悸亢進 梅毒

十一日分 一圓 廿三日分 二圓 五十日分 五圓 [illegible]

古醫學에서新發見

病毒排除 血液循環과瘀血療法



必讀

▼頭痛、耳鳴、肩痛、手足이마르는분(中風、神經痛)

▼動悸、喘息、寢汗、盜汗으로煩悶하는 心臟病婦人

▼記憶力이 薄弱하고 부룸으로苦悶하는분(梅毒、神經衰弱)

無代進呈 葉書로申込하면곳送付함 [四六判五十頁]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ノ十 電話京橋(56)二五八四番·二六三八番 振替口座東京六五三〇八番

申込所 古醫學硏究所

法律을모르는만큼 기막힌悲劇을演出
益益激增된訴訟事件
웃지못할世相

法律을 모르는까닭에 敗訴되야서울고잇는사람이 相當히만타。그中에도第一만흔것이 金錢貸借、家屋賃借、商業去來와 處理하기困難한家庭事件이다。조곰한일을 떠드러서 裁判所의괴롬을끼치고、엇더한가지法律의 制裁를맛지안흐면안되는世上!

世上에는한가지만잘못되야도事件을일으킨[illegible] 往往히잇는故로 日常法律을알어두어서事件이일어나면곳應用함이大端히便利하다 最近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에서『日常法律百科辭典 附家庭の辯護士』라

기막히게엿어진 世上이것은 大阪을비롯하야 各地의 裁判所를드러다보면 굉장히增加된 訴訟事件을 볼수가잇다。當然히 勝訴될것도

고하는 難問題가解決될수잇는알기쉬운法律書가發表되얏는바、一般素人에는絶好한 相談役이다 同書는 從來어려운法律書와 또달라서 實際問題를 取扱한것으로 金錢의貸借는勿論、民事、商法、土地、家屋、離婚、相續、戶籍等의 難問題로 머리쏠을 알치안코 解決하는至便히 便利한것으로서 同書冊마힛스면 辯護士가不用이다。더구나同書는 總頁四百餘頁의 大冊으로서 定價二圓인바、法律의 民衆化라는意味로 半額인一圓과 送料十錢으로 販賣하고잇스니 希望者는 前記現代出版社에 葉書로 申込하면 빨리 送冊하여주고 代金은着本後送費共一圓三十錢이다

百萬圓보다貴한子女 子女를못낫는 婦人들께大福音!

子女들이업는家庭마큼寂寞을늣기는것은업다。女性은子女를낫는天與의義務가잇다。그런데結婚後三年五年十年동안에 一回도懷姙한일이업는婦人들이만히잇다。間或姙娠의目的을達하엿다하드래도 早産、流産等의原因으로 解産된즉、不具、不健全한것이 往往出産되다。이것은天意에悖逆되는것만

아이라人生의最大不幸한일이다。今般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에서新發賣한『姙娠自由自在、子の出來る法と 育て方』는이런不幸한婦人을爲하야 最新學理와實驗에基因된姙娠의原理와其方法及健全한育兒法을누구에게나알기쉽도록말하여서詳述하여잇슴으로本書의 一讀에依하야그대로實行하면男女間에所望대로子女를生産할수가잇다。더욱附錄으로서

「健全な赤ちゃん」을[illegible]하야잇슴으로 生活에不安한 [illegible]에게絶好의指導書다。
同書는四六判美本定價一圓八十錢인바五百部限하고送料共一圓으로前記現代出版社에서一般에게頒布하고잇슴으로希望者는只今곳「姙娠 テ」를 送付하라고葉書又는片紙로申込하면代金은着後送費共一圓二十五錢에送本한다。

훌늉한! 內職副業이 發見되얏다

고무風船가튼職業은危險性이만코손도덜수가업다 그보담一日四五十錢이라도조혼니確實한收入이잇는內職副業이잇스면 一家의增收를어더서生活安定의幸福스런生活을할수가잇다。
今般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에서發表한『內職副業總案內』는 理想的인 利益잇는일을 調査發表하고 內職副業의일을 發表하며 商品原料의仕入 製品의 販路까지도 記載하고잇다、더욱 小資本으로되는 小賣店의開業法及婦人就職案內도 調査發表하야잇다。 同書는 四六判 約三百頁로 特價九十六錢에 前記現代出版社에서 一般希望者에게 頒布되야잇서 버리冊으로 無資本同樣으로 또는 極小資本으로、老幼男女누구에게나 될수가잇고、또 本業副業으로서 確實有望한 代金은着本拂이며 送費卄錢增으로 送本한다

立身出世는 中學卒業부터
獨學의最新法發表

現代에成功함에고하면普校卒業만으로는 안된다! 아나무하여도 高普卒業程度의 學力이 必要하게되얏다。店員이나 職工이나 學問이업는분은 늑의뒤진다。況將來大成을 希望하는靑少年에잇서서는 一日이라도 等閑히 하지못할緊急事다。家庭事情으로 上級學校에 못가고頃間等으로 지내는 靑少年諸君이여決코 悲觀할것이아니다。今般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에서 發賣한『國民模範中學全科講義錄』은 文部省中學校令에 準據한 修身、國語、作文、漢文、英語、物理、心理、歷史、博物、算術、代數、幾何、圖畵等의 中學全科를 整然하게 統制한것으로

大小간 빼지안코 맨든講義로서 獨學者의 一大指針으로서참으로理想的인講義錄이라고할수가잇다。全學期十二卷合本을겨우 一圓五十錢(送費卄一錢)으로大特賣中이다 中學을卒業함에는五個年의長時日과約五百圓의月謝가必要한외에敎科書、參考書、用品等莫大한費用을안드러도도다를講義錄으로工夫함여고하면적어도一個年內外의時日과十數圓의會費가 必要한바今回特賣中인 國民模範中學講義錄은 단지一圓五十錢의 代金으로 自宅에서 自由로 工夫가되고 더구나 中學卒業과 同等의學力이 어더짐으로 目下大評判이다。希望者는前記現代出版社에 葉書로 申込하면 代金은引替로送費共히 一圓九十五錢에送冊한다同店의振替番號는大阪五六〇一四番이다。

아무리어려운 願屆書式이라도 척척써진다

世上의進步됨을따라社會制度가 一層益益複雜해진다 무어이거나서는 一章이나、목이나하야、[illegible]

何로非常한損失을보는例가不少하다。조고마한屆書도自手로씀줄을모르면、곳代書人에게 依賴한다 三十錢五十錢은어느틈에날러간다 그뿐이냐、自己가모르는故로不便하기짝이업다。이러한缺陷을補足하야 萬人適合의指導書는언는가하는一般需用에應하야『改正書式全書』라고題目한 約三百頁의書籍을著者心血을傾注하야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에서發賣하엿는데同書는社會의趨勢와必要에應하야、日常必要에일어나는、賃借賣買、讓渡、質入、抵當、請負雇傭、登記、戶籍、寄留、兵事、營業、特許願、渡航願、納稅事務民事訴訟及人事訴訟手續等에 關한諸書、願書、申請、申立狀及添付書類의書式約二百種으로遺漏업시明瞭히누구나容易하게알도록하엿스니本書一冊만잇스면代書人의必要업시全部어려운書式도쓸수잇스므로事業의能率을增進하는上으로보드라도不便利하다고申込者가殺到하는現狀이다。同書는三百頁의大冊이나特히前記現代出版社로直接注文하는분께限하야定價一圓八十錢인것을特價一圓으로頒布하니希望者는葉書로申込하면代金은着本(送費共一圓卄五錢)에送本해주다。

便紙잘쓰면 立身出世가빨너!
植原文學士 發表

與人交際이나 商業去來에도 便紙를 잘쓰족 他人에게 歡心을 밧고무스일에던지 쉽게解決이되는反面에잘못쓰면 벙어리同樣으로生覺하일이充分히 表現되지못하고 드되여義理를傷하고저便의感情을사서 엉뚱한失敗를하는일이만타。文學士植原路郞氏의『實用新案手紙大辭典』은 實用、交際商用、葉書文、候文과口語文、趣味의便紙、其他모든便紙쓰는法이 即席에서알게되고、如何히片紙를잘못쓰는분이라도本書一冊만잇스면마음대로 便紙가척척써짐으로理想的인 便紙辭典이다。그의定價는二圓인바 一千名限하고겨우 一圓送料十五錢이라는 破格的廉價로 特價中이다。더욱十版發賣記念을爲하야、常用漢和辭典、いろは引新辭典、文章新辭典、趣味書翰全集、模範日記의五冊을特別景品으로서右便紙辭典注文者에限하야 同封無代進呈하는故로景品만으로도一圓以上의價値가잇스니實로出版界空前의壯擧이다。希望者는 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로申込하시면代金은着本拂로送料共一圓卅八錢에送本한다고하니絶品되기前에至急申込이可하다。

살기어려운世上에 一躍成功의快報
算盤하나가唯一한武器

아무리 보고쓰는것을 잘하드라도 珠算을 잘못하면 애써서배운일도 쓰는것도 다無所用으로서 他人의 面前에서 生覺지도못한 恥辱을當하는일이만타 珠算이 善手라고하야서 小店員이一躍重要한 地位에 出世하는例는 往往히잇다 銀行、會社、商店其他如何한 職業이라도 珠算이善手이면 他人의羨望의的이되도록立身出世가빨니다。
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에서發表한『新式速成珠算獨習の秘訣』을본후 엇더서루든분이라도一週間쯤練習하면수속熟達되도록苦心研究한結果獨特한考案으로、加、乘、除、暗算法、未選加乘法、開平法、開立法、步合算、其他珠算全般에亘하야 一一히挿畵를너어서빠진것업시詳述하야잇다。同書는四六版箱入美本定價一圓五十錢인바大特價『一圓』送料十五錢으로前記現代出版社에서一般에게頒布하고잇슴으로希望者는葉書로申込하야代金은着拂로荷送送費共一圓三十八錢에送本한다고。
但目下發賣記念으로 今回만右『珠算獨習の秘訣』 注文者에게『珠算筆算原理速成術』及『詳解九九の原理』와 携帶에至便한極上等의『算盤』一個와三大景品을無漏無料同封進呈하고잇슴으로굉장한好評을博得하고잇스니希望者는絶品되기前에至急申込하라。

運조흔運轉手
머리못든學士들

世上일이란알수업다。大學出로서高等한學生들이就職難으로 이리저리몰니는者들이퍽으나흔하야겨우就職이되야도四五十圓의 싹리리가섞만흔便이데 何等의學歷도업시自動車運轉手가되면百五十圓內外의月收를어더서堂堂히活社會에飛躍하고잇다。只今社會에서는別로大資本이업서도도는高等學校의敎育을못바더도딸에確實한技術만잇스면如何한不景氣라도두서울것이업다。立身成功을希望한靑少年의떼나自動車界에進出할것이다 自動車運轉手는滿洲國、陸軍省、官廳等의 活躍의天地는實로 無限하다
今回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에서發行한『最新圖解自動車講義錄』은 中央自動車學校長大月先生이 十數年來의實地經驗에 依하야서 著述한것으로 小學卒業程度의學力만잇스면겨우三個月餘의 自宅自由工夫로 普通免許試驗을 밧게되는것으로 目下大大的好評을 博得하고잇다全國自動車學校의 敎科書並自動車營業者의 參考書等에도 採擇申込을 밧고 잇다。
同書는三冊合本紙數六百頁의大冊으로 挿畵도 二百六十餘 定價三圓五十錢인바 一千部限하고特價 一圓七十錢으로 發賣하고잇슴으로 希望者는 現代出版社에葉書로 申込하면 着本하여送費共一圓九十五錢에 送本하여준다

五十錢銅貨가 八十圓 에팔닌다

거짓말가튼 眞事實!여러분이日常使用하고잇는 貨幣中에서、相當한高價物이잇다。그中에는 數百圓하는貴重品도잇고 一錢銅貨로八十圓以上에 팔니는것도 잇다。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에서 發行한『金銀銅貨幣名鑑』에 依하야 이런金은 貴目을 차저내서 돈을버러주시요 [illegible] 名鑑記載의價格으로 全部 前記現代出版社에서 買受한다고하니 右名鑑은三錢切手十枚를 前記現代出版社에 보내면 곳送冊하여준다고한다。

이것이야말노 第一優良品

ランランチック
(란란직구)

장갑
製造家를求함

○年中無休……收入確實
本業은小資本으로서京鄕을莫論하고婦女子들이容易하게製造、製法은二三日의講習으로充分、製品은一手로引受、絹絲는供給하여드림으로서遠地에서라도不便업시取引할수잇슴。目下有利한條件으로서製造者急募中 詳細는通知次第說明書無料送呈

朝日軍手京城支店
京城府黃金町五電停前
電話本局(2)二七五三番
本店·大阪·支店·東京
平壤府櫻町五三 朝日軍手營業所

● 腦의疲勞 執務讀書等으로徹夜工夫時에頭腦過勞
ノーシン (노-신)
을服用하라 疲勞한腦의恢復이迅速히식는허리腦가明快
明快 해지며愉快히工夫할수잇는安全한腦力恢復藥이다 全國藥店에잇슴 ●

오줌나올때압흔 淋疾……ネオヂリン(네오지린)……먹으면안압흐다
各有名藥店에잇슴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두통과치통에
진노-

良好한포마-도는毛髮의榮養을助長한다

자라나는毛髮을위하여는
メヌマ를사용하여주시오!
五月의若葉과도가티참으로
生氣잇는健康의徵象、美麗한
毛髮을자랑할수잇슴니다!

メヌマポマード (메누마포마-도)

毛髮美의有効成分을含有한純植物性!

찐득찐득하지안코!
번들번들하지안코!
잘퍼지고! 香氣조코!
씨스면잘떠러지는!

MP86

發賣元 井田京榮堂

森永ミルクキャラメル (모리나가밀크캬라메루)

福順이와順男이는 언제나 싱글벙글 웃고잇슴니다 그것은 森永밀크캬라멜를먹기때문이지요 森永캬라멜은 그조흔맛보다도 各種 榮養素가包含된것임으로 맛으로만먹을것이안이라 훌륭한 榮養食料品으로서 더욱 成長期에잇는 어린이들에게는 업지못할 理想的食料品입니다

五錢·十錢

森永製菓株式會社

監督 勝浦仙太郎
オール・サウンド
明朗篇 大學の獅子
河津淸三郎、高津慶子主演
姬宮接子、由利健次、南部章三助演
久方振りの勝浦監督が最く得意の明朗篇です
永樂町 電話二三〇番
中央館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超特作
原作、脚色 陶山密
監督 勝浦仙太郎

御存知の極樂二人組は再び皆樣に劍難と女難の抱腹絶倒の珍劇を展開する!!
極樂劍難女難
スタン・ローレル オリバー・ハーディ 主演
原作 フランク・バトラ
監督 ジェームス・W・ホーン
メトロゴールド超特作日本版

オール・トーキー
子負ひ虫
嵐寬壽郞 主演
五十鈴桂子、嵐德三郞、瀧木忍、泉淸子外寬プロ總出演
原作 子母澤寬
監督 益田晴夫
新興キネマ本年度提供 嵐寬壽郞プロ超弩級作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劍難女難	二·一〇	三·二九	七·〇〇
大學の獅子	二·四〇	三·五九	七·三〇
子負ひ虫	三·四五	四·〇〇	八·三五

當る十三日堂堂大公開
陽春映畵シーズン第二陣に放つ東西特選名畵三大篇同時封切!笑ひと!!淚の劍戟週間!!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龍三三番

時代劇 愛怨二筋道
監督…渡瀨三樹夫氏
主演…中村琴之助氏

◇阪東ユニヴァサル合同作品
主演한本年度最大喜劇!
全米의人氣를集中한連載漫畵에서取材한喜劇映畵의스타로-!三傑의
監督…벤자민스트롬푸氏
主演…지미판란드氏
爆笑 頓馬빠루-카 全九卷

◇유니버-살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곳의巴里는혼오리의벨젱?이거야말노巴里의心臟을보고드르시라……
루오리·벨젼主演 出演
主演…모리스슈바-리에氏
監督…루이멜쟌-스氏
巴里ッ子 全九卷

◇유니버살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每日午後一時、밤七時三十分始映 土曜日、日曜日祝日은晝夜二回公開
五月十四日부터公開

"어쩌면저러할꼬" 부러울손"푸로필"

머리와얼골의균형만주의하라 방식도아조간단한것

「아주 훌륭한 푸로필이데」하는말을 뜨르시려면 엇더케해야될것인가? 실상 얼골의미를 보는데는 밝낫 아프로만볼것이아니라 도리혀 여프로본는 얼골이 조와야합니다。그러나 아므리 잘생긴 얼골이라도 쪽을 잘못즈면 여프로본는 얼골이 엉망이될때가만습니다。그럼으로 여프로보는 얼골을 조케하는데 잇서서 가장 과학적인방법으로는 무엇 보담도 얼골과 머리의균형을 취하지안니하면 안되는것입니다。다시말하면 이사진과가티 당신의 이마에서뒤목덜미까지줄을하나치고 다시뒷배코에서턱까지 한줄을칩니다。그래서다시 이두줄을대여보아서 그줄이 서로 기리가 방사하면당신의 여프로보는 얼골은 조습니다、그러나 아모리 쪽을잘찌여도 이둘의 기리가 넘우차이가난다면 당신의 여프로본는 얼골은 그다지조치못합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이론상견지에서 본다면 얼골이 길어서 말상진분은 쪽을찌는데 그머리를 생긴그대로두고서 쪽을 네루서찌면 그긴얼골이 점점 더길어 보힐뿐만 아니라 아주보기에 숭합니다。그럼으로 이러한분은 될수잇는대로 쪽을 올녀찟고 또한 뒤통수에 머리칼을 녀흘지에서 약간 소사오르게하는것이 언제든지 얼골을 명랑케보히도록하는것입니다。이러케 자긔의 얼골을보아서 이두줄을가지고 여러가지로 연구하면나중에는자긔얼골에 대해서한개의조화를엇게되는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얼골모양과「웨-브」에 대해서 몃마듸 주의말슴을 하겟습니다。

첫재 얼골이 길은분은「웨-브」를할때 이마에서부터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그러고 도화웨-브가 귀를덥허서도안됩니다、그러면 얼골이 점점 더길어보힙니다 그럼으로「웨-브」는 될수잇는데로 이마에서 내려와야하고 머리는 귀를 약간덥는정도로 쪽을찌면 훨신 더 아름다워보힙니다。

따라서 얼골이 둥근분은 이와반대입니다「웨-브」도 우에서부터하고 머리도 귀를덥는것이 도리혀 얼골을 좁게보히게하는것입니다 귀를 걷우 부드럽게내여노흐면 머리가 넘우 퍼저보히는때문에 귀를가진 다덥는정도로 하는것이좃습니다。

술꾼은엇재서 밥을덜먹나

—함부로배처못할「알콜」—

보통 우리네가 먹는술(그러나 납부종탁고) 이러나부분이 물과「에털알콜」(보통알콜)로 되어잇습니다。대체로 알콜이든음료수는 만히먹으면 원기를 회복식히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이런게에대한것을 통틀어한바에의하면 결론으로서『건강한 동물에게「메틸·알콜」의적당한분량은 섭식물의부족을 보충하고 체내의에네르기의소모를 방지한다』하는 결과를어듬수잇다한니다

◇

그다음 「메틸·알콜」파 식물의영양분인 단백질、탄수화물、지방과의열량(熱量—카로리로표시합니다)을비교해보면

당백질과탄수화물은 四、一카롤리
지방 九、三카롤리
에틸알콜 七、三카롤리

이와가티대체로보아 다른두가지의 중간가는 열량을가지고잇는데 더구나 알콜은 동물체내에서도얼른 완전히연소가되고 소화흡수가 연간빠른것이아닙니다 이점은 우리가매우주목할만한점이라고하겟습니다

◇

그건그러하고 여려분도아시다십히 술만히 먹는사람 비교적 다른음식을 만히 못먹습니다 더욱이나 밥과떡가튼것은잘 안먹고 단것도 별로안먹고 그저술안주라고해서 얼마안되는단백질을 섭취한분으로 훌륭하하로의 량식이됩니다 그것은 무슨까닭이냐 —먼저말한바와가티「메틸알콜」이 열량의보급을 하기때문입니다 이제한사람이 하로에 필요한 열량을 이천오백카롤리라고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식량은 음식물에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오백내지 륙백그람이됩니다 먼저말한바와가티 적은동물실험에 잇서서 알콜의 최대적당량(最大適量)은 각동물에따라 다르나 먹는음식물의 이할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말한 사람의 경우는 다소분량이 만허저서 하로에 오백 그람(一合七勺)의 일본술을 먹는다 친다면 그가운데 포함된 순알콜분량은 칠십이나 팔십그람될것입니다 이것은 열량으로 환산하면오백팔십칠카롤리 즉 건유백카롤리나되어 하로동안에 필요한총열량의 이할오부나 차지하는 셈입니다 그러고보니 담백질이나 탄수화물 일백오십그람(말려서)에 상당하게되니까 음식먹을때 다른것을 좀덜먹는대자 몸이 곪치를 알케된다고 볼수잇습니다

◇

그다음은「메칠알콜」의 영향치인데 동물실험에의하면 다음과가튼 효과가잇다한니다 —【첫재】탄수화물이나 지방의대용、보좌의역할을하고。【둘재】체내에서 섭취된지방의 운행(脂肪의運行)을 조케하고【셋재】식욕을 증진하고 소화를도을고 몸을 더웁게 한다는것입니다。

美粧閒話 ④ 연지、곤지

吳淑根

그러저럼 해포가지나서 하로는 안해를보고 무슨까닭에 이마에 다홍연검을 부치고잇느냐고 단단히캐여물엇습니다。안해가눈물을지우며 하는말이 『나는원님의친딸이아니라 족하딸로서 어려서 아버님께서송성(宋城)원으로계시다가 벼슬을 내노실때는 나는갓난어린아희엿고 어머님과언니한분까지다 도라가시고 나를돌아볼 사람이라고는 유모진씨(乳母陳氏)하나가잇서서 그고을남쪽에집한채를 정하고 나를마타길으는데 장터에서 갓가온데가되여서 유모가늘나를안고 채소(菜蔬)장사를하야가며 살아오드니 세살되는어느날은 장바닥에서 난데업는 미친놈하나이나타나서 칼로 얼골을찔으고 도망을갓습니다 그때상처가입때까지 가시지를 아니해서 그헌집을 감추노라고 다홍연검을 오려부치고 지냇가 우슴칠말을듣게됩니다』고 하는말에 남편도깜작놀라서 『유모진씨라는이가 한눈이구진이가아니냐』고 물으니『과연그럿습니다 엇더케아십닛가』고뭇는말에 『당신을 찔으게한 사람이 내로라』고자초지종의 이야기를하고、크게 긔이하게녀겨서、서로더욱공경하며 화락한일평생을 보내는동안 안문태수(雁門太守)가되여、태원군(太原郡)에봉하얏습니다。이런사실로송성(宋城)원이 그곳의장이를 정혼점(定婚店)이라고하얏다는 전설이잇습니다。

×

이것은 부부인연이라는것은 변치못할、사람이좌우할수업는운명이라는의미를 가르치는말이지만、이사실로말미암아 『곤지』라는것이 시작되엿다고전합니다。

家庭메모

통조림에도 상한것잇다

떠나어나 하이킹을 갈때에는 흔히들 통조림을 사가지고가십니다。아마 간편하고도 위생적이라고 그래서 그러것이겟지요。그러나 통조림도 섬한것이잇고 상한것이 잇습니다。멋모르고 사다가는 밋든도끼에 발이 찍힙니다。어떤것이 섬하나고요?

(一)통이 녹도 슬지 안코 찌그러지지도 안코 새로운것

(二)통을 두드려서 둥둥하는 소리가 나지안코 땡땡울리는것

(三)통을 손으로 조굼 지긋이 눌러서 들어갓다가 곳 소사 오르는것。

童話 토마스의효성 (一)

崔秉和

어느곳에토마스라고하는 소년이 잇섯습니다。토마스는 어머니한분을 모시고 쓸쓸하게지내는데 고만 어머니께서 중병에 걸리섯습니다。

토마스는 마음씨가 비단결가티 고은소년이라 어머니께서 병환이 드신뒤로는 혼자서 걱정과근심으로 지냇습니다。토마스는 밤에도 자지안코 어머니여페안저서 혈세업시 간호를 하엿습니다。그러나 어머니의 병환은 날로날로 더하야 갈뿐이엿습니다

어느 일요일날 아츰이엿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숨을 후후 쉬시면서 잠이드시엿습니다。토마스는 여페안저서 토끼와가티 파리를 쫏고잇섯는데 그러는동안에 여러날 지처서 자기도몰으게 고만 잠이드러버렷습니다。그러자 세마리 비닭이가 푸드덕날로부터 날너와서 들에잇는 나무에 안저서 토마스에게 드르라는듯이 이약이를 주고밧고 하고 잇섯습니다。

「가엽시도 밤에도 자지아느니깐 지첫나보다」하고 한마리가 말하니깐

「참말 기특한 아해야」하고맙하엿습니다。

「그러나 암만 간호해도 어머니병환은 좀처럼 나시지 안흘것이다」세마리 중에서 제일큰비닭이가 고개를 기우리면서 이려케 말하엿습니다。

그러니깐 제일적은것이

「엇재서 병이 낫지안흘가」하고 큰비닭이를 처다보앗습니다。

「토마스어머니의 병환은 흰백합꼿아가씨의 동을 비러야 할것이다」

「흰백합꼿아가씨라니 누구란말이요」

「너 누군지 입때 몰느니? 흰백합꼿의앗씨라는분은 저건너숲속가운데 살고잇는 숨의정(精)이다」하고 큰 비닭기는 호기잇게 가슴을 둥그러케 내밀면서 말하엿습니다。

이러한 이약이를 악가부터 꼬박꼬박 졸고잇든 토마스의귀에 드러갓스므로 토마스는 눈을번작뜨고 창밧을내다보앗습니다。그바람에 비닭이들은 깜작놀나서 날나가버렷습니다。

토마스는 퍽 즐거웟습니다。어머니께서는 아즉것 쿨쿨 잠이 드시엿습니다。그동안에 토마스는 건너편 숲속으로 갓습니다。그러고 흰백합꼿아가씨를 차젓습니다。얼마안가서 흰백합꼿아가씨가 계신 곳을 차젓습니다。

『여기로구나』—하고토마스는흰자랑하면서 꼿잇는편으로 뛰여갓습니다。꼿아떼는 적은 골작구니가잇고 그곳에는 조고마한 물이 흘너갑니다。그래서 다리를 건너갈냐고 힘껏보니간 다리기동에

아름다운 흰백합꼿 아가씨를 맛날사람은 이 다리를 건너다가 건너지말고 차저오서요。

하고 삭어잇섯습니다。다리를 건너다가 건너지 말고 건너편으로 가기는 도저히 될수업는 노릇이엿습니다。토마스의 얼골에는 락심하는 비치 띄돌앗습니다。못처럼 이곳까지 차저왓는데 흰백합꼿아가씨를 맛나보지못하고 가면 어머니병환은 나실수가업다。이러케 생각하니깐 갑작이 슬퍼젓습니다。

말 더 듬 이

問 세살때부터말더듬이발생하야 지금까지 교정되지 못한 이십사세의 남자입니다 공중에 대하야 어른을 대할때에 얼는 말이 잘나오지안흐며 공포심이 잇고 침착성이 업서지며 조금통이 생기여 가상이 답답하고 속이허하며 전신이떨립니다 지금은 공상이 심하고 두통이 납니다 이런증세도 『말더듬』의 부작용일까요 원래 신경과민증이 잇습니다 눈에맛는 안경을 사용하면 엇더할까요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水原 訥言生)

答 말을 더듬는데 치료법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을 조금 하지말고 침착하게 가저서 하고저하는말을 잘생각하야가 찬찬히 하기를연습할것입니다 여러가지 신경증세는 너무 걱정을 하여 발생한것일것이며 일부러 안경을 사용할필요는 업습니다 마음만이라여야 보충하면별 문제업슬것입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東來)

第三回 文化刺繡講習會

主催 京城女子基督青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時日 自五月十八日—至二十三日
場所 西大門町女子基督青年會館
—會費 壹圓— —定員 五十名—

短篇小說 灰色街【五】

李石薰 作 申哲秀 畫

최군이 또 『사보』전회를겸해서 오래간만에 맛난친구들과가티 기대리고잇스니 픽쿠로-잔으로 와야한다는것이엇스므로 밤일을핫내고 열한시나 가까워서 그리로갓다。담배연긔가 자욱한 방한구석에 최군을비롯하야 성해(극작가)、규철(소설가)이、사헌(신진소설가)이、R(시인)군등 다섯사람이 제각기 도롯한「포-즈」로 빙둘러안저잇섯다。모두 얼골이 벌거코、특히 최군은잡빡취해서 혀까브러진 소리로「메-롤」을 울리고 잇섯다。그때문에 가끔 좌중이 우슴으로떠들석하곤 하엿다。

최군은『나미꼬』를 열호로겨 안는듯이 한손을 그여자에게감고 외방안사람에게 들릴만치 큰 목소리로『하이네의 시(詩)의 『라·메-르·듀·노-르』(北海)의 첫절을 마치『나미꼬』에게 하소나 하는것처럼 외우고잇다 한 손으로는 자기가슴을 어루만지면서。

라 메-러 세 떼-물르
씨에라 쎄제토압
(바다의진주)
(하늘에는별)
메- 몽쿠-르 몽쿠-르
(내가슴에는 내가슴에는)
몽쿠-라 쏘나무-르
(내가슴에는 사랑이잇네)

꼿나자 최군 시랑독(詩朗讀)이 마젓이라고 여러사람이 박수를 하엿다。폐병(肺病)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기시작하면 밤새것이라도 해내는 사헌이가수구햇네 그러고는 비-루따러먹든 꾸부에다 정종을 갓득부어서 처음이려다 바처다。최가 이거조타하고 외치며 바드라는것을『나미꼬』가 빼아서다。

『아이그 그만귄하세요』

『그럼 나미꼬가 대신마서야해』

시헌이가 대드니까

『전끔짝못해요』

발땡울하라한다。그래 여러이서 그럼그래신 노래라도 해야한다고 모라세니까

『이건 내 죽흉 쟈즈송이애요』

그러터니 소래나즉히 그리-트리히』식으로 쟈즈송을한다。—

연애고뭐고 나원형어요
연애는 아편
영혼과 육신을 마비시킬때
귀한정춘을 일해야지
멜만이 나의애인 나의생명
멜만이나의 애인 나의생명

그리고는

『철저한 아메리카니즘애요』

하고 까르륵웃는다。그것이요는 이런사람이오하는듯 한것이 망스러워도보이고 특히 노코나하고 R군이 외치고 술을쭉되리켯다。이갑작파시인은 갑작이 다른사람은 다 뭐라고 떠드든대 호올로 규철이만이 우울하야 술만 마시고 안저 잇다。기껏 우스워야 마지못해 빙그레 할뿐이엇다。나는 그의우울을 잘알듯도십헛다。그는 프로레타리아작가로 정치운동에 가담햇다가 여러해동안 감옥사리를 하고 나온것이엇다。나와보니까 소위 비상시라하야 사회정세는 숨마킬듯 꼼짝 오금을 펄수업는 형편이엇다。누구나 인테리로서는 꽁꽁한 세기(世紀)적뿐안과 우울이잇는때이지만은 규철이에게는 그것이 더한층 절실하엿다。그런데다가 감옥에서 인간미(人間味)에 주리고 사랑에 고갈되엿던만큼 나오자 그는 한녀성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엿스나 그것이 또한 순조롭지못한것이엇다。첫재 규철에게는 처자가잇섯고 그애인—메레에게는 비록 파란에 빈햇다고는하나 한번마음을허한 약혼자가 잇는까닭이엇다。규철이에게는 그라 친구가만타 못햇스므로 이런사정을 아는 사람은 나하고 그밧게 그와가튼잡지사에서 일보는친구 한사람뿐이엇다。

나는 우울하게안젓는 규철을 일종련민의 정으로 바라보면서 술을권하엿다。

『필그리 생각하구잇나 어서잔들게』

『아모리 먹어도 안취네그려』

규철은 이러면서 쭉드리켯다。사헌은 술을먹어서 거붐한지 흠러흘러떠변정이 특유한 기침이 자젓다。

美容体操 化粧實演 과 映画 舞踊 의 會

入場規定

マスター愛用者御招待

藥店또는化粧品店에서마스타-香粧品三十五錢以上의치를사실때마다招待券一枚를贈呈합니다 (詳細한入場規定은招待券에씨여잇습니다)

初夏부터煩悶하는얼골의脂肪處置法

얼골에脂肪이生기는初夏부터化粧이어려워지지만異常하게도脂肪을吸收調節하는活性特殊白粉을配合한마스타-홈-팩은이煩悶을解決하야魅力的化粧이되므로至今大評判입니다

マスターパック (마스타-홈-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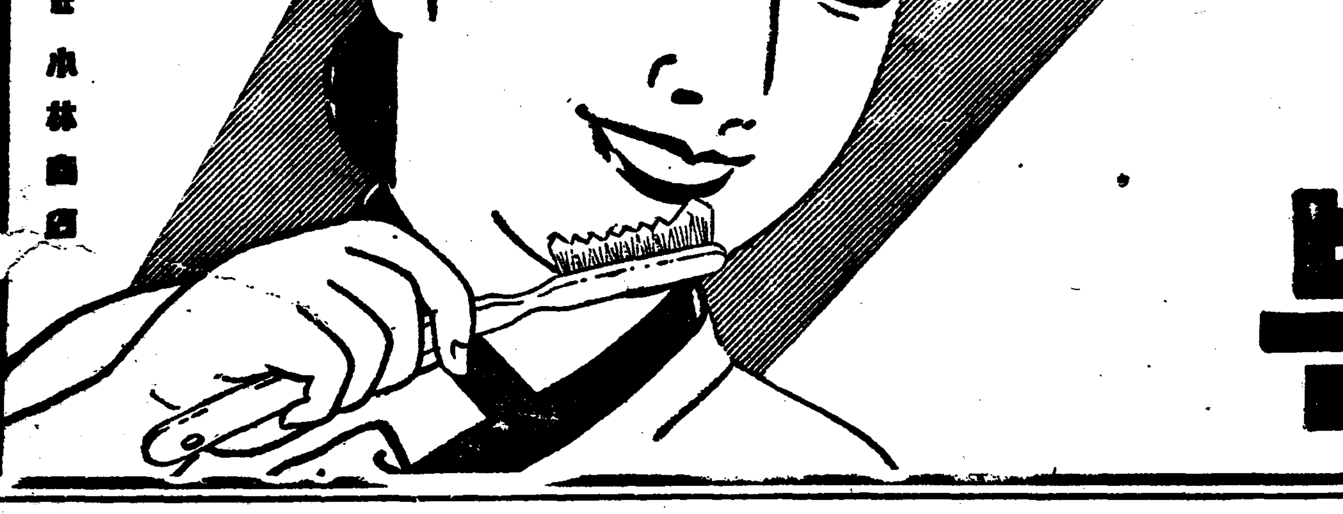
푸로그람
一、로이드의大勝利 (映畫)
二、化粧의實演 (마스타-專屬美容師 東都美容界의新人 리-까이드) 水城冴子
三、黑衣의處女 (映畫)
四、舞踊數種 (마담 비-즈 1名 出演) 高田澄子
五、마스타-香粧品이 되기까지 (映畫)
(水の江タ-キ- 田中絹代 特別出演)

會場 朝鮮日報社大講堂 時 五月卅日晝夜
會場 京城公會堂 時 五月卅一日晝夜
會場 平壤公會堂 時 五月廿九日晝夜

[定員] 時間은決定되는대로朝鮮日報紙上에發表할터입니다

齒牙美容

얼골美容은熱心히하는婦人도齒牙美容에는無關心한분이만습니다 그러나實은婦人의魅力은아름다운齒牙에잇스므로곡齒牙의美를爲하야、ライオン齒磨를使用하십시요。



라이온치마분

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1105—15

學藝

文壇時事數題 (二)
저-나리즘과知識群

金[illegible]容

그러면 朝鮮저-널리즘에 對한 反映的勢力 乃至 傾向이란 무엇을 意味하는것이냐? 新聞雜誌의 음즉이고잇는 側面으로서의 具體的事實로는 어떤것이 잇느냐? 朝鮮文壇의

【無】氣力이나 出版界의 不振이냐 또는所謂 저-널리즘의『良心的傾向』이 어데로부터 오느냐 하는것은 이제새삼스러 說明을 加할 必要가 업거니와 一言而蔽之하면 社會的現實的諸條件이 이를 規定하고잇는터이니 이러한 條件의 除去、或은 緩和가 엇지는 徹底的으로 우리의 期待에 副할수잇게 되기는 不可能할것이다.

그러나 現實的諸條件이라하며도 可避的條件도 잇슬는지모르되 不可避、不可抗的條件도 事實上 存在하야 如何한努力을 傾注하더라도 先進諸國의 民衆이 저-널리즘에 期待할수잇는바를 期待할수가 업고 그 저-널리즘이 民衆을 指導하는 態度로指導할수업음을 肯定치 아니할때야 아니할수 업는것이다. 그러나

【朝】鮮의 知識群이나 讀者層이 언제나 이러한 傾向에 默從할수잇겟는가 新聞이나 雜誌나 其他의 出版物이 어떤것을 讀者에게 提供하여야 하겟다는것보담도 먼저 어떠케하여야 이를 維持할수잇슬가함을 第一로 생각하여야하며 따라서實로 恒常 考慮外로 등한하게되고 質이 如何튼 먼저刊行物을 製作하야 商品으로 市場에 내노코 돈으로 交換하야 營業上收支를 마추자는것이 最緊要事이지라, 어찌 質的 向上을 圖謀할수가 잇스랴! 그래서 市場에 出現하고 讀者手中에 떠러지는것은 무게가업고 內容이업고 무엇때문에 이런것을 出版하지안흐면 안되는가 疑心치안흘수 업는것들 뿐인 現狀이다.

이러한 【趨】勢에 생각잇는 知識層의 一部이 嘔吐를 感하지 안켓느냐? 그러나 이보다도 먼저 이러한 營業乃至 販賣政策中心의 저-널리즘은 그自體內의 矛盾으로 해서도 自然 退却을 不可避하게할 것이다. 그나마 稿料問題도 決定되지아니한 朝鮮社會의 現實에 營業收支만을 考慮할수밧게 업다는것도 奇異한 現象이다. 이리하야 旣成된 저-널리즘의破綻은 새로운 方途를 考慮하지안흘수업게 되엇고、를재로 이러한 저-널리즘의 不必要를提唱하는 極端的一群과 또 이러한 傾向에 對抗하기爲하야 可能하고 恒久的인 新生面을 開拓하자는 一群이 現實的으로 움즉이고 잇는것이 現今의 趨勢인듯하다.

이제 似而非 저-널리즘이란 意味에서 不必要를說하는 一群은 【表】面에 들어나지안헛다 하더라도 潛在勢力으로써 現在 저-널리즘의 形態形의 事制를 피하고잇다고 볼수잇는데 如何한 現象이든지 『잇는것이 업는것 보다 낫다』는 錯覺만을 通俗的으로 長說하지말고 『업는것이 잇는것보다 낫다』는 命題도 때로는 可能하고 可合하다는것을 肯定한다하더라도 지금의 現實에 잇서서 너무나 極端的인 不必要說은 事實上 實現도不可能하려니와 主義로서도 反對하지안흘수 업을것이니 이는 現實을 抛棄하는 한 論으로서 現實을 無視한 것以外의 아모것도 아니다. 如何한 條件下에서라도 우리는 그 條件의 排除克服에 努力하면서 現實에서 最善한 方法을 選擇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그러면 저-널리즘의

【破】壞를 防止할수가서 잇어고 또 저-널리즘의 新生面打開는 如何한 方法이 可能하것는가? 筆者는 얼마前 某雜誌刊行者의 會合에 參席한 文壇關係者諸氏 그들의 上에서도 誌界의 實體、論評이 流行하여야 한다. 나는 거기서도 勿論 저-널리즘에 對한 不滿과 現實的 事制勢力을 揚棄하는데잇서서는 거의 觀念的이 同一하엿스되 그方途에 對해서는 반드시 一致함을 볼수잇엇다. 그러치만 現今의 저-널리즘의 經營難이나 債務에 對한 觀點이 同一하다면 現實에서 可能한 事制勢力의 某程度를 除去함으로서

【更】新된 一步를 내어드딀수 잇겟다는것만은 말하지안는 가운데 서로肯定한것이다。一般이 다가티 是認하고 다함께 痛感하는 問題로서는 저-널리즘의 經濟的基礎라는 問題엿다。勿論 이問題는 오래問題로서 지금에 始作된 問題는아니로되 저-널리즘存立의 不可缺의 一條件으로서 經營과 販賣와 稿料問題를 內包한 重大條件이니만치 언제나 第一義的으로 考慮되지안흐면안될問題일것이다。況 稿料는 文人學者의 生活을 保障하고、그럼으로써 責任잇고 價値잇는文化的生産을 讀者에게 提供할수잇게하야 저-널리즘의『質』을 制約까지할수잇는것임을 아울러考慮할때에 現實的으로 質的向上을圖謀할 第一義的인 可能한 方法으로서 저-널리즘의 經濟的基礎確立이 提唱되어야할것이다。

BOOKREVUE

永郎詩集

李源朝

日前에 朴龍喆詞伯으로 부터 한권의 가벼운詩集을바덧다。題目에『永郎詩集』이라고 하엿스나 目次도 序도업슬뿐만아니라 作者의 本名까지도업음으로 엇더한 詩集인지 몰나서 뒤적뒤적하다가 겨우 끗헤가서 金允植 永郎詩集이라는것이 잇기에 이著者가 金允植氏인줄알엇스나 그래도 나는 이詩人이 누구인지를아직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閒暇한날午後 나는 偶然히 이詩集을 페여드렷다가 五十三篇이 한권으로된 이冊을 그냥 한숨에 내처읽을수가잇섯다。

대개 한권冊子를 한숨에 내처읽을수잇다는것은 그冊이 아모리 小冊자라도 決코 容易한일이아니다。勿論 그冊이 惡書일때는 한두줄만읽어서 곳집어 버리고십흔 생각이나지마는 또한良書일때도 이러한일이잇다。그것은 讀書란冊이가지는 精力과 讀者의精力이 마치 씨름을 하는것과맛찬가지임으로 讀者의 視覺神經이나 呼吸이나 脈搏等의 모든 生理的條件이 그冊을 익일마치제하지아니하면 到底히 한숨에 내처읽지못하는것이다。

그러면 讀書에뿐만아니라 모든方面에 잇서서 나가티 怠惰한性質로서 엇지서 이한권冊子를 다 읽을수잇섯슬까를 생각해볼때 첫재이詩集이읽기 쉽다는것은 처음부터 끗까지 作者의野心이 터러곳만치도 나타나잇지 안는때문이라고할수잇다。다시말하면 이 五十三篇中에는 아모런 緊張도업고 興奮도업고 抑揚도업시 한갈가티 보드러운緬羊의 털과갓다。그럼으로 나는 이詩集을 읽고나서 어느詩가 좃코 어느詩가 낫부다는것을 揀擇하는 괴로움보담도 이詩集을떠나서 詩人의 肉體와 마음을 想像하는 李突을한참동안 느낄수가잇섯다。

事實우리가 한부개의 寶石을 볼때는 눈도 敏銳해지고、物慾도생기지마는 한소반의 眞珠를 아떼노흐면『우리의 귀는 조개껍질과가티 바다의 물결치는소리가 그리워』질것과가티 이詩集을對하면 무슨 魅惑的인 恍惚感이나 침을 흘림만한 食慾을 자어내는것이아니라 다만 이作者의 보드러운 呼吸과 어엽분 손까락을 想像하는 깃붐을 맛볼수잇는것이다。

이만하여도 이詩集을 아직 읽지못한讀者까지 彷彿할는지모르겟지마는 이詩人은 어느意味에서 매우 非意欲的이다。世界가 금방 뒤집혀도 이詩人은 關係할바가 업시 그저 自己의 애련한 感情을 될수잇는대로 細眞하게 노래하면 그만이다。그럼으로 만약 이詩人이 이대로나간다면 나중에는『뮤-즈』의 嫉妬까지 바들는지도 모를만치 自己의世界에 沈潛하고잇다。그러나 이 自己의世界가 엇지나 어질고 고하서 그것이 우리에게 驕慢하다고생각혀지지안코 도리혀 우리로하여금 親近하게하는것이다。그러나 우리가 이詩와 親近하다고해서 이詩가 忽地에 우리에게『코케트리』를 보혀주지도 안을것이고 우리가 攻擊하다고해서 또한 이詩가 排擊하지도 안을것이니 本來부터 이詩集은 [illegible] 萬若 내가 이詩를 읽고 自己난 깃붐을 알지 못하는 同好者와 서로 논호는 機會를 가질수잇다면 多幸하겟스므로 若干의 佳篇을 적는것이다。(發行所京城府[illegible]一六九 詩文學社 定價一圓 振替口座京城一八六〇五番)

漢詩

清明—押烟 桐岡 考選

佳作 宜川 李明鎬

早塗靈室暮瀉泉・佳節將臨百五天・
盤薦香糕交杏酪・爐傳新火散槐煙・
試衣稱快妻方笑・酹酒含悲祖永眠・
此日遨遊從俗慣・山齋休課習耕田

科學餘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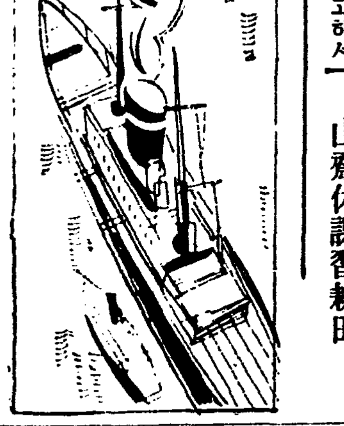
精銳無比한 空中戰車

『카-욘將軍』『크리스티-』라고하는 六十九歲나되는 老技師는 戰車의 權威로서 米國에 알려저잇는바 氏는最近空中을 날수잇는 戰車를 發明하야 各方面에서 센세이슌을 惹起하엿다『크리스티-』氏自身의 發表에依하면 [illegible]

實戰車는 重量이 겨우四噸의 超輕量戰車인데 機甲板의 두께가半吋 三吋砲一門과 機關銃二挺을 裝架하야 時速六十哩乃至九十哩로 [illegible] 하는 자못 愉快한것이다。馬力은三百、[illegible] 飛行機에서 地上에 着陸할때 衝擊을緩和하는機能이다。製造費는 一臺一萬五千弗乃至二萬弗。大型飛行機가이「크리스티-」戰車를 携帶하고 [illegible] 目的하는곳에 戰車를 떠러트리면 [illegible] 氏는 [illegible] 다음과가티 말하엿다『나는 수年의 研究와 [illegible]』

空襲과 電燈照明 (三)

東電技術部 兪完昌



또다시 爆擊機를 나누면 重爆擊機 輕爆擊機의二種이 잇을것이다 輕爆擊機는 主로 晝間爆擊을 目的하는것이요 最大時速二百乃至二百五十粁 上昇限度三千乃至八千米 行動半徑三百乃至六百粁이요 爆彈의搭載能力은 二百瓩乃至一千瓩이라한다 此處에言及한 行動半徑이란것은 飛行機가出發點에서 任意方向으로 往復進行할수잇는 最大距離를말함이다 重爆擊機는 主로夜間爆擊이 目的이며 最大時速百八十乃至二百十粁 上昇限度三千乃至七千米 行動半徑四百乃至一千六百粁 爆彈搭載能力一噸乃至八噸이요 發動機도 數個를裝備하고 總馬力數는 普通二千乃至三千馬力或은六千馬力이다 現時의投下爆彈의種類를大略列記하면다음과如한것이다

投下爆彈
爆彈……{投下榴彈 投下地雷彈 投下破甲爆彈}
燒夷彈……{投下燒夷爆彈 投下散布燒夷彈}
瓦斯彈……{投下一時性瓦斯彈 投下持久性瓦斯彈}

投下榴彈이란것은 比較的厚肉의 內部에 爆發威力이 强大한 炸藥을 收藏하야 炸裂飛散하는 破片으로 人馬를 殺傷하는것인데 그重量은 十瓩 乃至 二十五瓩이요 그破片의 遠距離 散飛界는 半徑百米 乃至 二百米이라한다 投下地雷彈이란것은 爆藥의炸烈威力으로 效力을 發하는것인데 普通投下爆彈이란것은 本彈을 意味하는것이다 이 爆彈의 特長은 强爆藥의 多量充塡과 [illegible] 企及치못할만한 多量의 爆藥을 充塡한것이니 그威力은 爆發威力을 遺憾업시 發揮할수 잇는것이다 本彈은 製造容易한것도 一種의 利點이요 本彈의 最大한者는 重量一噸에 及한다 하니 그威力을 可히 미루워알수가잇슬것이다 그리고 地雷彈은 破壞效力以外에 殺傷 燒夷 瓦斯의 三效力을 並有한것이니 都市에서는 直接 殺傷效力以外에 構造物의 破片의 飛散으로도 殺傷効力이 至大한것이다 이밧게 强爆藥의 爆發로 火災를 이르키고 燒夷威力을 發揮하며 爆發로 因하야 發生하는 一酸化炭素의 有毒瓦斯의 發生은 實로 可恐한것이니 僅五十瓩級의 地雷彈도 炸裂할 時는 大略二萬五千立의 一酸化炭素를 發生하며 特히 이것이 地下室 密室等에서 不完全爆發을 起할時는 또다시 有毒한『니트로』瓦斯의 多量을 發生하야 人畜을 死滅시키는것이다 投下破甲彈이라는것은 堅牢한 侵入破壞를 目的하는것인데 砲彈과同一한 効力을 有한것이다 投下燒夷彈及投下散布燒夷彈은 火災를 惹起하는것이다 그럼으로 이것을 一名放火彈이라고도稱한다

投下瓦斯彈은 國際條約上 禁止되는아니하엿슴에도 各國에서는 秘密裡에 熱心으로 研究한다는것은 專門家의 一致된意見이니 次回大戰에는 이무서운瓦斯彈이 出現치안는다고뉘 斷言할수잇스랴

歐洲大戰中에『이페리트』或은『호스겐』等과如한 持久性投下瓦斯彈을 參戰各國이 所有하기는 하엿스나 이를使用하야 만일에 [illegible] 그被害를바들것임으로 使用을躊躇하든次에 戰爭이 終焉되엿다한다 一時性瓦斯彈이란것은 그 効力持續時間이 數時間에 不過하고 持久瓦斯彈이라는것은 二三日乃至 一週日間 滯留하는것을 時에 比重이 特大함으로 戰時 空襲에對한 國民의 唯一한 避難所인 地下室에까지 이瓦斯가 侵入停滯하나니 그威力은 不可形言일것이다

四象醫學批判 (續)
그理論과實際에關하야

②李乙浩

그러므로 四象醫學은 陰陽論中에서도 特히 四象說이라 指稱함이 옳을줄아다 卽 四象을 모-든理論과 實際의 主體로하고 우으로는四象理論의 源流를 캐고 아래로는 四象理論의發展을피함이 今後四象醫學徒들이가저야할態度라할것이다。

다음으로 四象臟腑의 五行論的關係를 이야기하여보겟다。舊醫學에서의 臟腑組織의 五行論的說明은 지루하게 여긔에쓸必要도업고 趙憲泳氏著 通俗漢醫學原論의 臟腑篇을 參考하기바라며 여긔에서는 四象醫學과舊醫學과의 사히에 五行論을取捨하는데 어떠케다른가만 槪略說明하여볼까한다。

五行은 金木水火土의 다섯原素를 가르킨것이니 古代希臘哲學의 初創期에 이와類似한 宇宙觀을 唱導한者가만타。그中酷似한者는 萬有의根源을 地水火風의 四元素라하고 愛憎의 二動力에依하야 離合하는 現象이곳이現實界라고한 엠페도클레쓰라하겟다。

그러나 이때의 宇宙論的物理觀時代의 地水火風等의 槪念과 五行論的 要素의槪念과는 決코 同時에論할수업다。하나는唯物的이요 自然科學的인反面에 다른하나는 唯心論的이요 觀念論的이기때문이다。

金木水火土의槪念은 如何間에 醫先王들의 臟腑說明에서의 新舊醫學의 相異點을 表示하여보면 다음과갓다

臟腑 / 新舊醫學	心의系列	肺의系列	脾의系列	肝의系列	腎의系列
舊醫學	火	金	土	木	水
四象醫學	土	木	火	金	水

心의系列

心을 녯사람은 火라하엿지만 土는 中央에屬하엿고 心은 中央의太極이다。金木水火가 오르지 土의四隅에屬하는者이니 吾人의臟腑에서도 心이곳 人體生理機能의 君主라할것갓다 即血液은 生理機能의原動力이요 心臟은 血液의源泉임과갓고 心은 마음 或은精神作用 心理現象의 總括的槪念이라고도 할수잇스니 心의活動은 스스로 人體의活動을 左右하는 主宰者인것이다。

그러므로 녯醫學에서 脾의系列을 土라하여 治療根本을 脾로잡은까닭에 天來의脾弱者인 少陰人에對한 醫學經驗만이豐富한 것은 그까닭이여긔에 잇다。그러나 四象醫學에선 心을土라하엿기때문에 喜怒哀樂과 愛惡慾의 人性의偏倚를 더욱重要한病源의하나로 보게되엿다。그러므로 心의系列은 血液의 源泉일뿐이아니라 心理現象의 主宰者인것도 우리는 아러야한다。

肺의系列과肝의系列

녯사람은 肺를金이라하고 肝을木이라하엿스나 四象醫學에선 이것을뒤바꾸워노앗다。그까닭은 木과金의槪念이 木은動的이요 生長의 意味가多分하엿고 金은靜的이요收斂의 意味가만타。그런데 肺는 渾濁臟腑의 靈宮이며 그活動이 草木의同化作用에서보는것과가티 暫時도쉴사히가업는 生動的이다。그러므로 木에該當하다고看做할수잇고 肝은 凉氣의 系列이니 肅殺의貯藏이 그役割임과가티 그活動은 比較的靜的이기때문에 金으로보는理由이라하나가되다。肺肝의 位置로보아도 肺는 上焦에잇스니 草木의 枝葉과갓고 肝은 中下焦에잇스니 地下의 根莖이나 金石과갓다。

그리고 臟腑들의 相生相克의關係로 보드래도 以上의 關係를 바꾸어놋는것이 說明하기에 여러가지로 便利하고 實際도 또한그러하다。

脾의系列

脾를 火로보는까닭은 脾는 熱氣의系列이기때문이니 녯사람이 心火라하는것은 잘못이다。天來의 脾弱者인 少陰人에게는 官桂 附子 乾干等의 熱性藥을 마음노코쓸수잇는까닭은 少陰人에게는 脾火(陽氣)가 不足하야 그러함에 [illegible] 天來로 脾氣가旺한 少陽人에게는 石膏 [illegible] 伏苓等의 寒性藥을 쓸수잇게되는것은 그런까닭이 [illegible] 四象醫學者가아니면 하기어려운 일일것이다。

海外短信

「쇼-」以上의 檢閱受難者

『뉴-욕州國民黨會』『버-나-드·쇼-』는 戱曲四作品을 檢閱에 通過되지안헛스나 나는 實로二十二作品에 檢閱이 아니되엿다고 하는 사람은 『로-렌스·하우스만』이라고하는 新進劇作家이다。『뉴-욕』의 수期『지-존』에는 그의 劇『빅토리아·레지나』가 허렌헤이스孃을 主役으로 大好評이여서 連日滿員의盛況을 못하엿스나 그때문에 『론돈』에서『뉴-욕』에 나타낫 하우스만은 記者團의包圍를받으면서 『나는 正히『쇼-』以上의 檢閱受難者이다 今回의『빅토리아·레지나』도 『빅토리아』女王에 對한 이야기로서三十의 連續小劇을모은것인데 먼저內大臣『크로-머-』卿에게어떠나 물어보앗든바 女王의御女息이三人이나아직在世中이니까 어떠케해서 좀더 敎化할方法은업겟느냐고 亦是 잔소리듯게되여 할수업시다시썻다』고하는等氣焰을吐하엿다

讀者社交室

▲一、明治四十四年陰五月廿五日은 陽曆으로 어느날입니가? 二、初步中國語學에 適當한書籍及 販賣店과定價。三、京城을起點으로奉天、新京、滿洲을經由하야 大連、天津、上海를거처 長崎로와서 仁川으로오자면 旅行券이업서도 되겟습닛가? 上記場所에서 一日乃至 二日間式滯在할豫定인데 旅行費가 最低限度얼마나듬니가? 누구시든지 本欄으로通知하야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住所氏名을明記하시요) 水原M·N·I生

▲나는江界의實情을 그림가티 그려여내어논 吳允彥著江界總覽을 五十部가량 가지고 잇습니다 內容은 江界의 仔細한 史的沿革 各社會機關、敎育、言論의 沿革 各産業界의 累年間統計及 郡主의 歷代年對表의傳來沿革及 各文物及主要人物及 名所의 實寫等이 들어잇는 三百頁의 大冊으로 定價一圓五十錢입니다 누구시든지 日文이나 朝鮮文이나 間에 單行本으로된 冊이면그만이 오니 左記住所로 보내주시는분에게 一冊式보내드리겟습니다 (江界便局私書函十二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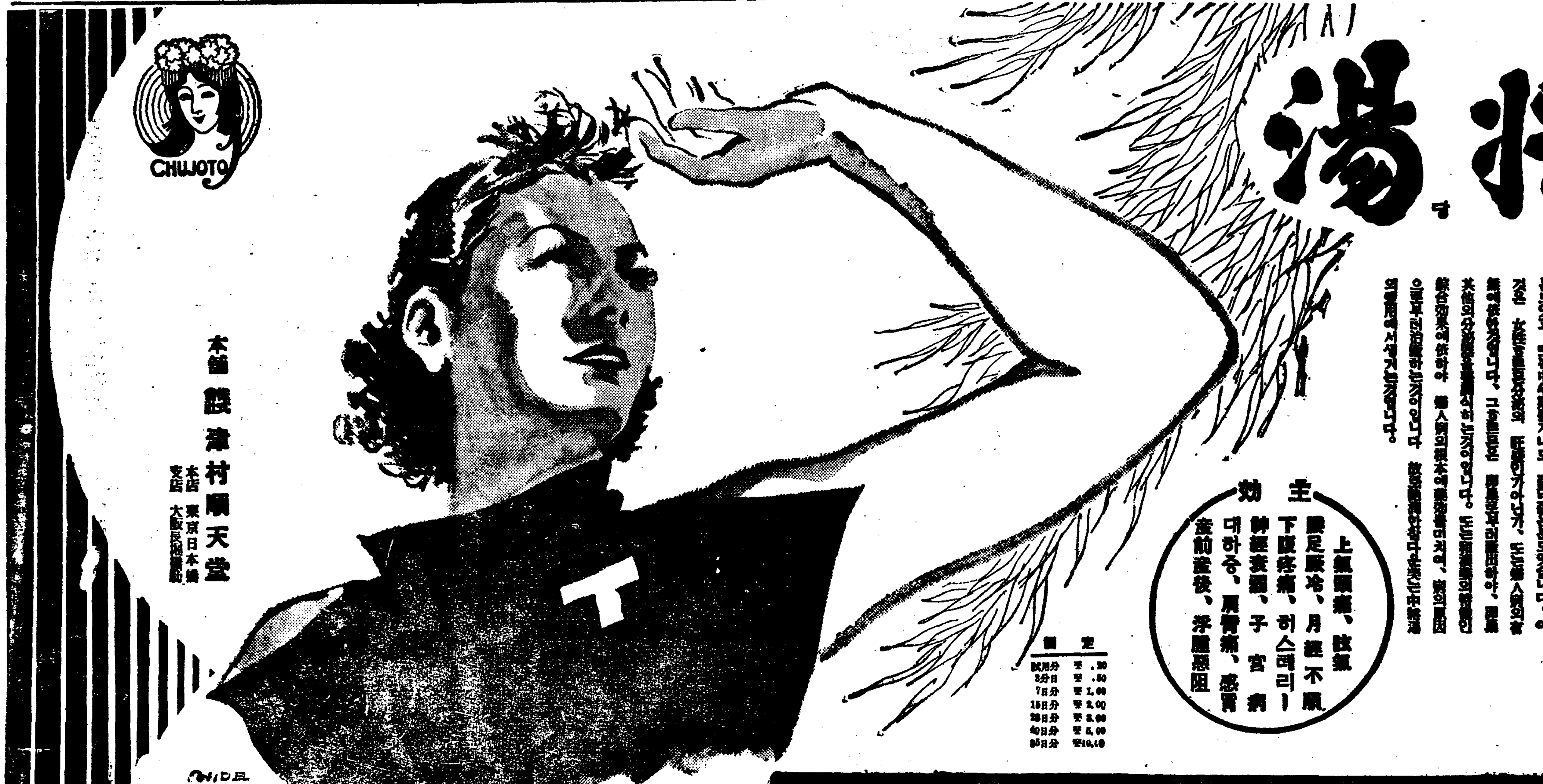
▲白南雲氏著朝鮮社會經濟史 改造社版맑쓰엥겔쓰全集中 第十卷剩餘價値學說史(第二卷二) 第二十六卷(詩ドイッチェイデロギ書籍) 右記書籍讓渡하실분은 左記住所로 通知하여주시면 價格高下는 勿論하시고買受하겟습니다 平北博川郡德安面二峰洞 金昌振

▲求職=生은當二十歲된男子이온대 將來敎員을 希望하는 一獨學生입니다 工夫를爲하야 今春上京코저하옵는데 市內에게신분으로 普校生의家庭敎師나 書生이나 或은病院에小使 어느것이나 採用하시면 조켓사오니 希望하시는분은 通知하야주시옵소서 但要求하는것은寢食事뿐이요 따로給料를바라지안슴니다 黃海道松禾郡雲游面島項里 尹相臨

▲生은十八歲現在大邱某中等學校在學中(四年)이온데 끼-타를 좀배우고자하나 혼자배우려하나 어려워서 日曜日或은 土曜日에 가서가르침을 밧고자하오니 一個月에 五六回씩先生의품을올려서 배우고자합니다 學校에서도音樂을하는만큼 방송은아님니다 그러면 每月에求하시는 月謝金을 드리겟습니다 社交室을 通하여 下敎해주시면 차저가뵙겟습니다 大邱 바람生

▲新義州에잇는金勝燮氏! 여러번편지하나 편지는바람만되고 누구에게住所를알여야 알길이업스니 궁금함이마지아니하네 나는 昨年가을에 정숙나와 離婚에와서 실낫갓흔運命을 逃避에서헤매이고잇는줄이나아는지? 因緣에빼앗과 悲慘에行悖에서自由를부르짓고나온 안타가운心情가진나에게 兄에消息이나 좀알여주게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九 崔斗煥

해가는줄몰라라



婦人藥의權威

中將湯

女性호르몬의나은
偉大한女性美를보라
自然美를發揮하야 생기잇고젊디젊은?
化粧美라하더라도根本은健康에서

[illegible]

主效
上氣頭痛、眩暈
腰足厥冷、月經不順
下腹疼痛、히스테리-
神經衰弱、子宮病
대하증、肩背痛、感冒
產前產後、浮腫惡阻

定價	
試用分	金 .20
3日分	金 .50
7日分	金 1.00
15日分	金 2.00
20日分	金 3.00
40日分	金 5.00
85日分	金10.10

本舖 津村順天堂 本店 東京日本橋 支店 大阪長堀橋

淸談野談

布袋記 (十三)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머슴살든임검(一)

「죽여야 해!」

「죽여야 해! 꼭 죽여야지!」

하시고 왕께서는 죽여야겟다는 말씀을 거듭하신다.

왕께서 꼭 죽여야겟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왕의 삼촌이 되시고 안국군(安國君)을 봉한 달가(達賈)다.

왕은 고구려의 제십사대 임검이 되시는 봉상왕(烽上王)이시다.

왕께서는 천성이 교만하신중에 남을 의심하시고 남을 시긔하시는 마음이 더욱 많하섯다.

그래서 일즉부터 그부왕(父王)이신 서천대왕(西川大王)께서 늘 왕을 대하시면

「네가 아마도 바르한 사람이되겟서。남을 의심하고 남을 시긔하는 그 마음의 뿌리를 뽑아 버려라。천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하의 사랑이오고 천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천하와 미움을 밧는법이야。예로부터 자식은 부모의 예를이란 말이 잇지만。」

하시면서 왕의 의심성과 시긔심을 빼버릴것을 교훈하섯다.

그러나 왕께서는 부왕의 간절하시고 지엄하신 교훈도 마음에 새이시지를 아니하섯다。

그리다가 임검위 노픈 자리에 올으신 뒤로는 더더구나、그 조치못하신 성품까지가 놉파 가섯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은 왕에 때서 거행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웟다。

뚜뚝히 거행하자니 시그럽하섯이오 어릅거리자니 벼슬맛다고 꾸중이 내리시게된 까닭이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은 왕에 때서 거행하기가 나치한것이마치 자단업는 송사를 치는통뭇자리에서 두 팔을 벌리고선 것 가텃다。

여러 신하를 중에도 달가는 더욱 어려웟다。

달가는 천성이 어질고 엄숙한 사람이다。

나라일을 바라 다사리매 상과、벌과、은혜와、위엄을 베풀어 처사를 공명히하는 명관이엇다。

그래서 백성들은 달가를 부모와 가티 밋고 딸으며 그뿐 만흔 일국에 진동하얏다。

그런데 고구려 사람중에 달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오즉 왕한분이시엇다。

왕께서는 달가를 미워하시다 못하야 죽이시려는 생각까지계시니 그 곡절은 잘 알수업는 일이엇다。

엇재든 여러 신하들은 왕께서 죄업는 달가를 죽이시려는 뜻이 게신것만은 확실히 눈치를 채엿다。

「허 어진 임검을 만나지못하는것도 한 팔자소관。신라로나、백제로나、피하시요。」

하고 달가에게 왕의 뜻을 말하며 피신하기를 권하는 사람도 만하엿다。

「이몸을 피하면 목숨은 보전하겟지만 임검의 허물을 나타내는것이니까。」

하면서 달가는 그 권하는 말을 듯지아니하엿다。

왕께서는 필경 달가를 죽이라시는 분부를 내리섯다。

여러 신하들은 궐하에 들어가 머리를 조으며

「상감마마、알외압기 황송하오나 만일 안국군이 아니시드면 어찌 량(梁)맥(貊)숙신(肅愼)의 란을 면하고 이나라 이백성이 이처럼 평안히 살수가 잇슬것가。안국군은 상감마마의 지친이실뿐 아니라 공도 만코 충성도 장하오니 그 죽이시랍신 분부를 거두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는 말씀이 압날을 ...하엿다。

그러나 여러 신하들의 알외는 말은 오히려 왕의 진노를 더 돋구어 드렸다。

나라 사람들은 달가의 죽엄을 듯시나 슬퍼하며 왕을 원망하엿다。

그런데 왕께서는 달가를 죽이신뒤에

「죽여야 해!」

「죽여야 해! 꼭 죽여야해!」

하는 말을 도로 연거퍼하신다。

海外映畫消息

「英國篇」

「하―트의 王」 監督은 「몬티 빵크스」氏 主演은 「그레이시·피르스」「죤·로우다」氏 「에니드·스탐프·테일라」等이다。英國 第一의 人氣女優 「그레이스·피르스」의 喜劇으로서는 多少遜色의 感이 업지아니하나 그것이 지금까지의「피르스」映畫로서 第一 잘된것이라고하니 興味잇는일이다「죤·로우다―」는 舞臺의 人氣者「그레이스·피르스」는 그 男子에게 반하는 女店員으로서 이두사람이 서로 알게되자「피르스」는 舞台地方으로 그를 찾는다。그래서 彼女는 富豪의 婦人이라고 誤解되는데서 온갓 喜劇이 생기는것이다

「그女子에게는 音樂이 必要하다」監督 「레슬리·S·하―스콧트」氏 主演 짝·힐톤、안드·하스보이스、주―드、라이드等。짝·힐톤、안드·하스보이스의 音樂에 喜劇과 노래를부치어 노흔 喜劇

獨逸篇

「우―파」社 「마스·파이파·프로덕숀」은 「거울그·야코비」氏監督下에 「와―사만」「라―르」兩氏의 原作脚色인「乞食學生」을 製作하고잇다 新人으로「요하네스·헤―스타스」氏와 「마리카·렉크」嬢 「카―로라·헌」嬢 「뷔―스트」氏等의 主演。「에리쓰·칼며―스」氏撮影「프릿스·마우라키트」氏裝置。

「것사·폰·볼바리―」監督은 「로―피스·라나·로―란」氏主演으로「프란다스의 城」을「요하니스달」撮影所에서 製作하고잇다。「마르타、에가―트」嬢이 하르트、「워르너、브르데스」氏가「크랑크」하고 와이스나―嬢「방울할르만」氏 겨울그、알렉산더―」氏等이 出演하엿다。

「오이로파」社는「카게파、프로덕손」으로、에、베、에 모氏로하여금 「오가누기나」를 監督製作식혀다「브른노·몬딘」氏의「카메라」는「조례」「엘드만」兩氏의「세르로서 主役은「파울·헤르비거」、「가르트데、마―렌」「한스·모―자―」氏等이다。「레―라、로―파、프로덕숀」은 「一夜의정열」을 製作中。「쎄르렛트·오페니우스」氏의 脚本에 依하야「하―버르트·셀핀」氏가 演出을 擔當하고「빌롬·데·코봐」氏「마리아·다다카스트」「라아데레·잔토록」은 「에리히·슈르본스키」氏 가 各各擔當하엿다。

三月末에서 四月初까지 封切된 主要한 映畫를 들면 다음과 갓다。

「天眞한天使」「올프·노이마이스타―」氏 原作脚色 「프란쓰·자이쓰」氏監督 「루씨―·엥그릿슈」嬢主演의 遼遠한 國境村落의 密輸入者를 主人公으로한 喜劇이다。「요―、슈레첼」氏、「프란쓰、니크릿슈」氏等이 助演하엿는데 平凡한作品이다。

「强王아우구스트」는 十七世紀「포―란드」의 歷史的人物인 强王아우구스트」의 事蹟을 映畫化한것으로 아우구스트」의 政治家로서 또는 支配者로서의 卓越한 贅質과 그情的生活의 一場面을 描出한것이다。「미야엘·포―넨」氏가 主演이고 「리트·다―고파―」孃「마리라·위스네프스카」孃「루―토·에―베라」孃「마리아·바르쎄크키윗스」孃「마리알리제·크라우되우스」孃等이 그相對役이되엿다 撮影은 「칼·푸―로」氏 裝置는 「루도위히·라이버―」氏 音樂은「한스·엘르만」氏이다

「王의現點」은 「메·에·유르게」氏原作脚色「칼·베―제」氏監督의 通俗喜劇이다。主役으로「쇠―롯헤·다우델르」孃「아데―레·잔드록크」孃

「熱走」는「로―타르·보스트」氏 映畫、「아토리우앤트」「올프·노이마이스타―」氏의「씨나리오」에 依하야「것사·폰·보르바리」氏가 監督한 喜劇이나「씨나리오」가 致命的으로 低劣한때문에「보르바리」氏 監督도、그技術的으로서의 努力도 撮影「에밀·하―스라―」氏 裝置「웨르나·브란데스」氏、作曲「프란쓰·그로―데」氏 全혀 效果를 내지못하고말엇다。主演은「마리루이제·크라우되우스」孃「구스타프·프레리히」氏等이다。

「말성꾸러기女子」는「오이로파」社 映畫(「그로리아·파라스트」社提供)「레아·폰·블보우」女史의「씨나리오」에 요하네스·마이야―」氏監督「로로레아·윅크」嬢主演이다。石油會社의 資本主義的競爭과 產業스파이의 活躍을 取扱하면서 心理와 感情을 描寫하려고한 作品이다。

處女散步 [illegible] 主演의 [illegible] 우니버살映畫다。寫眞은 [illegible]레스톤·포스타 와 시사·롬메로다

裵龜子樂劇團 今週의새푸로

裵龜子樂劇團은 去十一日로부터 새로운 푸로를 始作하얏는데 그역시 一般 팬들의 絕讚을 바더 連日 盛況을 이루고 잇다。寫眞(右上)은 天安三巨里 (右下)푸른편지 左는 까시고사를 歌劇化한 人形祭다。

樂壇消息

音樂家協會 演奏會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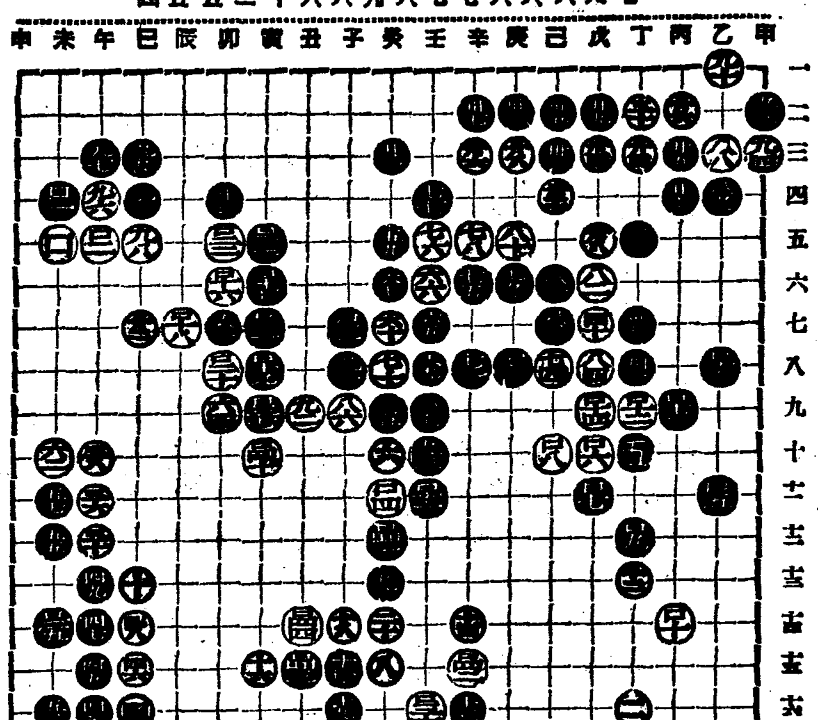
朝鮮音樂家協會 主催로 開會 演奏會는 五月 十五日밤 市內 太平通 府民館에서 열기로 하얏는데 朝鮮樂壇의 權威를 總網羅하야 이와 가튼 演奏會를 열기는 近來의 드믄 盛事로 미리부터 一般의 興味를 이끌고 잇스며 驚異의 「푸로그람」은 朴慶浩、安聖敎、金仁洙 三氏의 三重奏를 비롯하야 李升學 蔡善葉 朴景嬉 金學鎬 李英佐保諸氏의 獨唱과 金애리氏의 피아노獨奏安聖敎의 바이오린獨奏가 잇고 끗흐로 桂貞植氏의 絃樂四重奏團演奏가 잇다

圍碁對局譜 (9)

本社主催

白 丁奎泰

黑先 任佑植



●二九	辛의十七
○三〇	壬의十七
●三一	壬의十六
○三二	庚의十六
●三三	辛의十八
○三四	戊의十七
●三五	庚의十七
○三六	丁의十八
●三七	寅의九
○三八	子의十八
●三九	丑의十八
○四〇	寅의十
●四一	癸의十二
○四二	辛의十五
●四三	丑의十五
○四四	巳의十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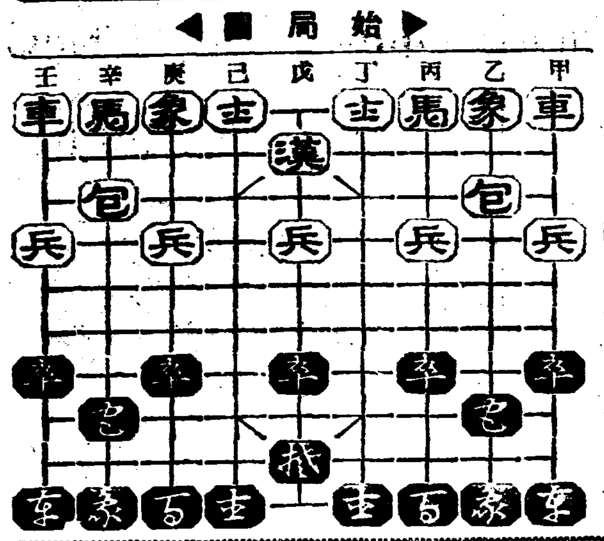
蘇榮文氏評日 白이 戊의十七로 黑一點擒捕함은 銳敏한 手法이다 黑이 寅의九로 衝進하고 癸의十二로 白腦後를 壓하니 白의 被角이 膺出이라 修補方法이 大端不便함이 보인다 黑이 丑의十五로 自陣擁成은 擒點이 아닌가 卯의十八로 列着하면 差强할가하노라

將棋名手對局譜 (十二)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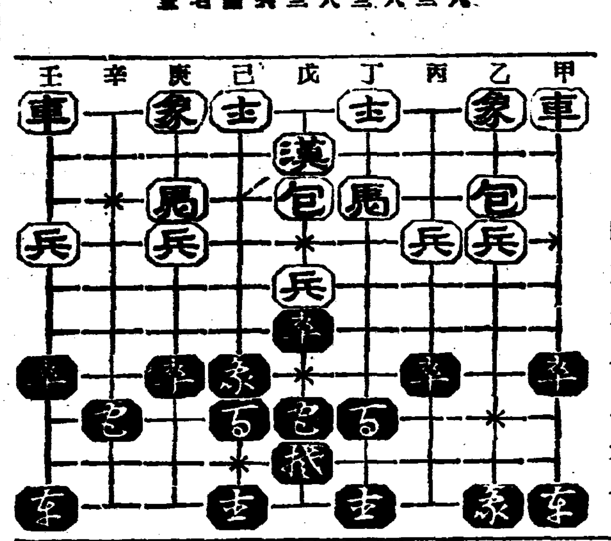
漢 李在鳳 楚 先手 全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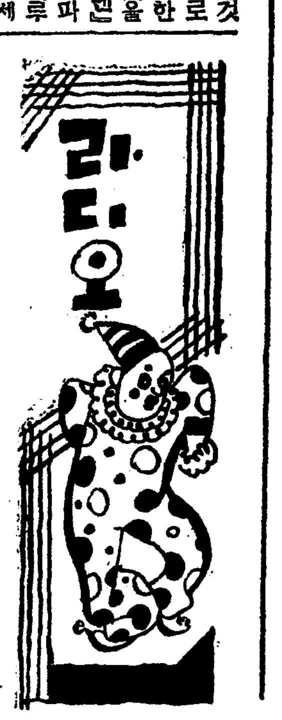
◀始局圖▶



◀十手圖▶

丙十[illegible]—丁八
丙一馬—丁三
乙六[illegible]—戊八
辛一馬—庚三
庚十[illegible]—己八
辛三包—戊三
戊七[illegible]—戊六
甲四兵—乙四
辛十[illegible]—己七
戊四兵—戊三





十三日 (水曜)

◇午後六時三〇分 라듸오少年小說(一)「깁붕의이야기」―金裕貞作― 單 葉山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吳基先
◇同八時 趣味講演 各道의風土이야기 徽文高普 金道泰
◇同八時三〇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趁撲歌 二、唱劇調 春香歌中德石틱 歌手 池龍九 朴八卦
◇同九時 달거리外 一、달거리 二、적수단신 三、매화타령 四、리별가 五、방연꼭포 六、노래가락 七、창부타령 李浚紅 細笛 高載德 短簫 崔壽成
◇同九時三〇分 古談「神人隱跡」 李雲林

第一放送

◇午後六時二五分 基礎英語講座(十三) 豐谷榮
◇同七時三〇分(東) 講演과實驗 ―大阪帝國大學醫學部에서中繼― 一、腸診斷은무엇을알수잇나 大阪帝大教授醫學博士 小澤凱夫
◇同八時 첼로獨奏 엠마누엘·포이야만 을프강·레브나
◇同八時三〇分(大) 舞臺劇

十四日 (木曜)

◇午後〇時五分 孔明歌外 一、孔明歌 二、蜜邊歌 三、平壤念佛 四、자진배따래기 五、방아타령 六、양산도 金逸淳 金芙蓉
◇同三時一五分 法律講座(一)「結婚에對하야」 玉璿珍
◇同六時三〇分 라듸오少年小說(二)「깁붕의이야기」―金裕貞作― 單 葉山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趣味講演「植物과傳說」 徽文高普 李軒求
◇同八時 講演「衛生과運動」 醫學博士 白麟濟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將進酒 二、黃鷄詞 金鳳仙 金蘭珠
◇同九時 라듸오·드라마「물소낙인」一景 ―配役― 昌洙……河 大岑 金永根 [illegible] 許蓉 [illegible] 朴齊晋 放送劇協會 演出 李瑞求 效果 楊薰
◇同九時四五分 [illegible] 一、[illegible] 二、三設 李文源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illegible] 講座(十四) 丸山順太郞
◇同一〇時三〇分 [illegible](三) 京城[illegible]
◇午後〇時五分 로키이야기 [illegible] 吉川[illegible] 光春
◇同二時 主婦時間 [illegible] 對한主婦의注意 二見[illegible]
◇同四時二〇分(東) [illegible] 初日 [illegible]國技館에서中繼
◇同六時二五分(東) 趣味講座 昔今의力士 老本[illegible]次郞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illegible]
◇同八時(東) 講演 金의 進步와航空機의發達 工學博士 田邊友太郞
◇同八時三〇分(東) 浪花節
◇同九時(東) 作曲祭 ―日比谷公園에서中繼

十五日 (金曜)

◇午後〇時〇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바위 (樂器獨奏)四、山念佛 五、江原道아리랑 六、방아타령 笛 池龍九 [illegible] 崔壽成 細笛 高載德
◇同三時十五分 法律講座(二)「遺產에對하야」 李升雨
◇同六時三十分 吹奏樂 [illegible]樂隊 指揮 金李俊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趣味講演 李克魯
◇同八時 講演「努力과忍耐」 佛專敎授 金斗憲
◇同八時三〇分 花草四巨里外 一、報念 二、花草四巨里 三、六字백이 四、개고리打鈴 高桂仙 高飛鳶
◇同八時五〇分 管絃樂(通俗名曲定期演奏第五回) 一、交響曲第六番(驚愕)하이든作曲 第一樂章……아다지오、잔라빈레비 第二樂章……안단테 第三樂章……메누엣트 第四樂章……알레그로、디이모 二、歌劇오베론序曲 베버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레오내―드、크로이차―
◇同九時三〇分 古談「胖虎木」 車青吾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 家庭講座 醫師가오기까지 病救援(三) 醫學博士 橋本寬敏
◇午後〇時〇五分(東) 連續講談 籠城(上) 神田伯龍
◇午後二時〇〇分(東) 婦人時間 家庭과法律(八)相談의種類(二) 法學博士 牧野菊之助
◇同四時二〇分(東) 夏場所大角力實況「二日目」―兩國國技館에서中繼
◇同六時二五分(大) 連續慢畫劇(五)
◇同七時三〇分 靑年의밤 產業과發明의話(十四)
◇同八時(大) 勞動民謠(合唱付) 피아노 [illegible] 武澤武
◇同八時三〇分(東) 洞簫와吟詠 洞簫 湯澤天眞 吟詠 [illegible]田旭
◇同八時五〇分(東) 管絃樂(通俗名曲定期演奏(第五回)) 一、交響曲第六番(驚愕) 부부아체、아사이第一樂章아다지오·칸타빈 第二樂章 메누에트 第四樂章 알레그로 二、序曲 베바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레오이드、크로이차

★曆★

五月十四日(木) 陰三月廿四日(壬辰大)
甲申·火·奎·平
●祭祀嫁娶移徙起工動土上樑未時 開市納財에宜함
●立夏五月六日(第十六日)

最高級의化粧石鹼原料 純팜오일製

婦人은勿論兒童의柔肌에도好適 살결을거칠게하지안코때가잘빠진다

仁丹石鹼

徹底的으로齒牙를히고强하게하는

專賣特許의이齒磨

仁丹齒磨

仁丹本舖 森下博營業所

淋疾(림질) 特效新藥

놀나운이효력

止膿·鎭痛 消炎·殺菌 收斂·利尿 作用的確

本劑는高木、井尻兩博士 臨床實驗結果治淋內服藥으로서 醫治作用이的確하고 副作用이絕無한優秀藥으로認定되엿고 全國著名病院에採用을밧고잇는完全製劑입니다 一時患者를誘惑하는誇張廣告의藥과는判異한것이니 特히此에注意하시고 合理的製劑인 노보노ー루의服用으로 淋疾을根治케하십시오

包裝及定價 三〇球入 一·〇〇 五〇球入 一·五〇 一〇〇球入 二·七〇 二〇〇球入 五·〇〇

說明書交獻進呈

京城西小門町 株式會社 藤澤友吉京城支店 本店 大阪道修町

全國著名病院採用

複方노보노ー루球

KN62

春風에 乘勢한 火神
山林에서 商街에서 惡戲闖肆

六千餘町步燒燼 尙今猛烈延燒中
被害額槪算이 四萬數千餘圓
雪岳山大山火後聞

【大浦】과부―양양군서면신흥사(新興寺)사유림을 중심으로 미증유의대산화는 회진된면적이 륙천여정보이며 인가로는 신흥사소속암자내원암(內院庵)과계조암(繼祖庵)의 삼응각(三應閣)이 전소되엿는데 피해액은 개산만도 사만수천여원에 달한다하며 불은 상금도인제군계를 향하야연소되고잇다고한다

定平郡에서도 六十町步燒失
發火原因未詳

【定平】지난십일일 부내면(府內面) 과고산면(高山面)의경계선인 삼각흥업주식회사(三角興業株式會社) 소유림에서 오후사시경에 발화하여 때마츰 맹렬한 강풍에 긔세를더하야 륙십여정보를 소실하엿다는데 그근방은 숫(炭)제조하는곳이 만타는데 발화원인은 알수업스나 혹시숫제조하다가 발화한것이 아닌가하는데 동일시경에 겨우진화하엿다고 한다

通川郡下大山火 二百餘町步燃燒
東拓私有林도猛燃中

【通川】지난칠일부터 통천군림남면다동(通川郡臨南面茶洞)부근에잇는 국유림에 불이이러나때마츰 맹렬히부는바람에 화세는 더욱심하여가서는데 지방주민의 노력으로 진화되고 구일부터 운암리(雲岩里)부근국유림에 또연화되야 방금맹렬히 연소중인데 총면적은 약일백사십여정보나되다하며 원인은 대개입산자의부주의로 추상된다고한다 이외에도 흡곡면자동(歙谷面慈東)에잇는 동척회사사유림은 발서오일간이나 연소중이라는데 그면적은 대개일백정보이라고한다

三湖에白晝大火 家屋十三戶全燒
總損害額二萬圓假量

【三湖】지난십일일 오후령시십분에 함남홍원군삼호면삼호리(咸南洪原郡三湖面三湖里)의집에서 발화되여 때마츰 부러오는 폭풍에 화세는 사방에 퍼저부근일대를 휩쓰러순식간에 가옥십삼호와 삼림약이정보 가량을 전소 시기자 삼호소방조가 급거히 출동하야 겨우 오후두시경에야 진화되엿는데 손해는이만원에 달한다하며 방금 경찰당국에서는 발화원인을 조사중이라는바 때는 농경기인 까닭에 사람들이 모다 들에나간동안이기 때문에 가장즙물도 한가지 건지지못하야 뜻밧게 적수공권이된 그들은 엇지할바를 몰나 산지사방에흐터저 방황하야 처참한 광경을이루고잇다고 한다

元山榮町에서도 二棟二戶全燒
損害萬圓, 原因은漏電

【元山】십이일새벽 세시경에 원산부영정(榮町)구십일번지 중국인포목상 덕태상상점(德太祥商店)에서 돌연 불이 일어나 삽시간에 동상점을태우고 연접해잇는 리원근고물상점(李元根古物商店)에 연소하여 화세가 맹렬하여짐으로 소방조의 총출동으로 겨우 동세시반경에 이동이호와 상품일체를 태우고 진화하엿는데 동지대는 상점이즐비한 영정상점가엿기때문에 일시는 대단위험하엿스며 대혼잡을 일우엇고 손해는 약만원정도에 달하며 그집은 구천원의 보험에 부러잇다는데 발화의원인은 현재 원산서에서 조사중임으로 자세한것은 알수업스나 천정(天井)에서불이낫다는것으로보아 루전(漏電)인듯하다고한다

新鐵車煤煙으로 又復一戶全燒

【咸興】지난십이일오후두시 함주군하기천면하대리(下岐川面下大里) 김순화(金順化)방에서 불이 일어나 동세시까지동가일호를 전부태우고 진화되엿는데 원인은즉 그집겻흘 지나가는 신흥철도긔관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날려집응에 부튼것이라고 하며 손해는 삼백원가량이라고하는데 연선주민들은 다시금 작년의빈번한매연의 피해를생각하고 전전긍긍한가운데잇다한다

一次農組關係者 金璋烈假出獄

【定平】한때세간에 『쎈세』를이르킨 세칭제일차정평농조(第一次定平農組)의 중요관계자 김장열(金璋烈)씨는 함흥에서 불복공소하야 사년판결을밧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타가 저간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여 이래복역중이든바 지난륙일에가출옥으로 출감하엿는데 몸은비교적건강하다한다

京平對抗拳鬪戰 出戰멤버決定

【平壤】올림픽권투회주최와 평양무회권투부 본사 평양지국 공동후원으로 십륙일오후일곱시 삼십분부터 숭전체육관(崇專體育館)에서 개최되는 「제이회 경평대항권투전(京平對抗拳鬪戰)」은 실력만부민이 큰 기대를 갓고잇거니와 이제 경평의 멤버―를 보면 다음과가트며 오픈게임도 잇슬터이어서 인긔는 충천중되여잇다

◇……出戰멤버―

京城	平壤
李圭泰	趙英俊
金明培	韓龍河
徐廷麟	呂在德
李貴男	鮮于肅
徐永祚	孔德眞

其他오픈게임

日淸戰爭當時의 野砲彈을拾得
大同江中에서

【平壤】평양은 옛날부터 전쟁이 만흐든 고전장(古戰場)으로도 처처에서 전적을 구경할수잇거니와 대동강가운데에서 일청전쟁당시에 사용햇든 대포알이 나타낫다 구일오후한시경 제당회사(製糖會社)압강중에서 자갈을채취하든 부내 경제리(經濟里) 김윤택(金潤澤)(二三)은 강가운데에서 길이여섯치 직경이촌오분가량되는 녹이스른 쇠로만든둥근통을 지어 평양서에 신고하엿든바 그것을 감정한결과 일청전쟁당시에 사용한 야포탄(野砲彈)으로 판명되엿다한다

産後失眞한女子 畢竟投井自殺

【宣川】지난오월십이일오후한시경 선천읍 천북동 향교부근에잇는 정호(井戶)에서 묘령미인의 시체를 발견하고 즉시경찰서에 통지하야 경관과 공의 홍교업(洪敎業)씨가 검시한결과 사오일전에 죽은시체가 분명하나 자살이냐? 타살이냐? 하여일시긔장되엿스나 어여정체가 판명되엿는바 시체의 주인공은 선천읍북정동에서 명신양행(明信洋行)을 경영하고 잇는 김찬인(金贊仁)의처 리씨(二一)이라는바 자살한 원인은 지난이월에 해산한후 정신에 이상이 생겨잇다가 발작되여 지난사월경부터 종적을 차즐수업드니 드듸여 자살까지하게되엿이라고한다

凶作地災民救濟策 砂防工事를實施
一萬餘圓의工事費로

【惠山】흉작으로 곤궁에 빠저잇는 흉작지재민을 구제하려고하는 삼수군진강면 운산(三水郡眞江面雲山)의 사방공사는 도지방비 일만원의 공사비로 오월하순경부터 시작하리라고한다

會寧上水道故障 復舊는尙今漠然
損害가벌서一萬餘圓

【會寧】회녕읍상만시민의 생명선이되여 잇든 회령상수도는 작년겨울의 비상한 혹한으로인하야 수도부설이후 처음보는 고장이 생긴이후 읍당국에서는 불면불휴로 복구공사에 노력하여 왓스나 한쁜의 효과를 보지못하고 일전에 거대한경비를 드려서 회녕천변에 예비수원지를 시설하야 오늘밤까지 회녕천물을 그냥 양수하야 시민일반에게 공급하여오든중 그것도, 공장이 종종생기여 일반시민에게 불편이크다 그리고 상수도의 송수관동결된것이 일기가 아주 따뜻한 오늘까지도 해빙못된것이 약천여간이나 되다하며 그리고 또는 송수관이 녀무나 동결이 심한 관계로 파열된 부분이 잇서서 해빙된다하여도 종처럼 물이 오기는 만무하다 하며 이번 고장으로인하야 벌서손해액이 약일만여원에 달한다하며 복구책은 아직도 막연하다고한다

寬城青年會主催 懸賞童話大會

【新京】관성자청년회(寬城子靑年會)에서는 제일회소년소녀현상童話大會를 당지제일소학교대강당에서 지난십일오후칠시 개회하야 입상자는 다음과갓다한다 ▲一等金仁順(女)▲二等宋泰植(男)▲四等殷官鎭(男)▲五等白三遵(男)

本社神戶支局主催 大阪市觀光團
一路無事盛況裡畢了

【神戶】본보신호지국 주최대판견학단 일행은 예정과가티 지난오월팔일 오전구시반 단원삼십명으로 주최자측 설봉찬씨 인솔하에 삼궁역을 출발하야 동구시오십분에 대판역에도착되엿다 차에나리자 본사대판지국장김광수(大阪支局長金光洙)씨와 동지국원 박영수(朴永壽)씨의 출영으로 즉시자동차 팔대에 분승하고 대판지국장 김광수씨의 안내로 먼저 조폐국(造幣局)을 구경하고 다시미두취인소(取引所)의 관광을 마치고 설명만 드를뿐이고 모든지설의 웅장에 경악할뿐이다 취인소를 떠나 대환백화점(大丸百貨店)에 가서 주식을 먹고 한두시간 휴게한후 동오후삼시반 대판조일신문사를 견학케 되바 동사고교(高橋)씨의 안내를바다 긔념활영까지하고 동오후오시경 판급(阪急)전차에 우리일행의 몸을 실엇다 신호에 도착하야 미리 준비하여 두엇던 다과(茶菓)회를 개최하고 각기포부를 여러 소감을 말하고 동일오후칠시 화긔애애리에 폐회해산하엿다

◇寫眞…神戶支局主催見學團一行

精神異狀으로 妻婦亂刺死傷

【海州】정신이상으로말미암아 돌(石碣)로 죄업는 늙은안해와젊은며누리를 란타하야 사상(死傷)자를낸 참사사건―황해도신계군사면 석지교리(新溪郡沙面石芝橋里) 박경병(朴京炳)(三?)은 오래전부터 정신의 이상이 생겨오든터인데 지난팔일오전륙시경도 정신의 이상이 발작적으로 발생하야 자긔처 김학현(金學顯)을 돌로 구타하야 즉사시키고 이것을 제지하는 며누리 배씨(裵氏)(二?)의 두부(頭部)를 역시돌로구타하야 중상을입히여 소관신계서(新溪署)에서는 전긔 박경병을 인치하고 엄중취조중이라한다

地方人事

▲金容璧氏(義州郡屬)昌城郡轉勤人事次本報義州支局來訪 ▲崔逸鳳氏(義州郡屬)赴任人事次同上 ▲姜信孝氏(水原郡屬)始興郡轉任人事次 本報水原支局來訪 ▲車孝濟氏(水原郡屬)永登浦土木管區轉任人事次 本報水原支局來訪 ▲永田義雄氏(前楊平郡內務主任)水原郡內務主任轉任人事次 本報水原支局來訪 ▲兪義濬氏(前開豊郡屬)水原郡轉勤人事次 本報水原支局來訪 ▲張炳錫氏(山城鎭金融會理事)轉任人事次 本報山城鎭支局來訪 ▲李宗鎬氏(高原金融組合長)今般當選人事次本社高原支局來訪 ▲朴鳳鎭氏(開城人蔘同業組合長)富士博覽會觀察中 五月十一日歸京 ▲朴淳元氏(國境每申開城支局長)新任人事次本報開城支局來訪 ▲曹圭台氏(同報特派員)同上 ▲田世昌氏(白川聖公會傳道師)今般溫陽溫泉聖公會轉任人事次本社白川支局來訪

同一한勞働에도 賃金은不過半分
◇…賃金調査表에나타난 朝鮮勞働者의實收入

【元山】로동통계에따라 일상생계를 도모하여가는 로동자들도 그들이 짐머진 원적(原籍)을따라 로동시장의평가가 더하고 덜한 불균형된대우를 밧고잇는 눈물겨운비참한현상이 비저젓스니 이것을 일본내지인재원산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부내로동자임금표에 의하여보면 일본내지인로동자와조선인로동자가 가튼시장에서 가튼시간과 가튼기술로써 가튼일을하나 조선인로동자는 일본내지인로동자에 비하야 그반분밧게 안되는 임금을 밧고잇다고한다 이제몃가지를 들어대조하여본다면 다음과갓다

◇種別		錢
井戶堀	日本內地人	二,〇〇
	朝鮮人	八〇
大工	日本內地人	一,五〇
	朝鮮人	八〇
石工	日本內地人	一,五〇
	朝鮮人	八〇
左官	日本內地人	一,五〇
	朝鮮人	一,〇〇
煉瓦工	日本內地人	二,〇〇
	朝鮮人	一,五〇
鳶工	日本內地人	一,五〇
	朝鮮人	八〇
鐵力工	日本內地人	一,五〇
	朝鮮人	一,〇〇
製靴工	日本內地人	一,三〇
	朝鮮人	九〇
製車工	日本內地人	一,五〇
	朝鮮人	一,〇〇
鍛冶工	日本內地人	三,〇〇
	朝鮮人	一,八〇
土方	日本內地人	一,〇〇
	朝鮮人	五五

毎戶에卅箱爲限 礫石賦役繼續强行
細窮民層生活上大威脅으로
住民의怨聲날로高調

【倭館】경북칠곡군(漆谷郡)민은 도로의「자갈부역」, 사방부역, 교량신설부역, 임화에 관한 긔부등으로 일상생활에잇서서 위협을 늣기고잇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그후 제이차도로자갈부역을 호수(戶數)를 단위로하야 매호당 삼십상자의「자갈부역」을 하게되여 세궁민을 비롯하야 차라리층에서까지 총동원하야 부역에 활동하엿는데 이과중한 부역으로 말미아마 생활의 위협이 적지아니하야 이부역에 대한 일반의 비난의 소리는 날로놉하가고잇다한다

製絲業免許制實施 群小業者는全滅?
大邱府內에만二百餘名으로
六月上旬頃一齊實施

【大邱】군소제사업자(群少製絲業者)에게 큰타격인 조선제사업령(朝鮮製絲業令)은 작년십일월일일부터 발포실시하게되여 방금 경북도(慶北道)에서는 시행규측에 합격자만 한하야 일제수속을하야 총독부에 면허하도록 신청하엿다는데 래월초순경되여 허가가나올것이라한다 종래에잇서서 누구든지 제사업을 경영하야왓는데 제사업령이 실시한이래로 당국의 허가가업시는 제사업을 경영못하게 되엿다한다 당국자의 허가방침이란것은 조선제사업령 제일조제일항 다섯가마(五釜)미만의 제사업자에게는 면허안할 방침이라한다 경북도내에잇서서 군소업자의 매년고치소비량이 이백사십만오백오십키로그람의 만흔수자를 내고잇섯다는데 금번 이법령이 실시되여 그대부분이 일부의 큰그업가에게매앗기고 말것이라하며 설비가 불완전하고 또는 부업적으로 경영하고잇는 대구부내 이백여제사업자는 이법령으로 말미아마 부득이 공장의 문을닷지게되리라한다

悲觀끄테自殺 重病걸린룸펜

【西井里】지난십일일 서정리와 오산(烏山)역 사이 십매돌 지점선로에서 진행하는 열차에달려들어 무참히도 력사한자가잇다 전긔자살자는 일정한 주소가 업시방랑생활을 하는정행습(鄭行習)(三?)으로 서정리에와 방황하다가 설상가상으로 중병에 걸리자 무의무탁한 자긔의 신세를 비관하는 원한만흔 여생을 저주하며 저편세상을 차저간것이라한다

弓術大會盛況

【咸安】긔보한궁술대회는 지난칠일에 개최하라고 하엿스나 비가와서 다음날로 연긔하여 백수십명의 참가사원으로 성황리에 속하여 지난팔일오후세시경에폐회하엿는데 다음과가티 등급이결정되엿다한다

◇男子部

一等(泗川)金鍾五 二等(求禮)尹桂煥 二等(宜寧)盧五容 三等(南海)鄭常斗 三等(麗水)李芳憲 三等(求禮)高永澈 四等(泗川)黃南淵 四等(鎭覺)朴昭相 四等(麗水)鄭泰琮 四等(南海)韓守植 五等(浦港)鄭炳順 五等(晋州)李花玉 五等(金海)金濟東 五等(班城)金顯祚 同(晋州)金化善 六等(泗川)金誠萬 同(泗川)金容重 同(宜寧)金鍾濩 同(麗水)金學運 同(咸安)鄭文煥 同(咸安)黃彩秀

◇女子部

一等(馬山)韓石蘭 二等(宜寧)林蘭史 三等(泗川)金玉珍

養德學校音樂會盛況

【江西】지난십일강서군 반석면사천에잇는 사립양덕학교(江西郡班石面沙川養德學校)에서는 학교창립사십주년긔념음악회를 본보 사천(沙川)판매소 후원으로 그날밤여덟시부터 현교장 차영부(車永富)씨사회로 개막되엿는데 대성황을 이루엇다한다

平壤

△時日 五月十六日午後七時半
△場所 崇專大講堂

아마추어 京平對抗拳鬪戰

◇主催 올림픽拳鬪會
◇後援 朝鮮日報平壤支局

愛慾의彼岸 【8】
李光洙 作
金康穆 畵

이 때에 혜련의 뒤에서, 『여긔 오셧서요? 고기 논는 것 구경하서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잇섯다. 혜련은 깜작 놀라는듯이 고개를 뒤로 돌렷다. 그것은 김장로의 상점에서 일보는 설운주(薛雲柱)엿다. 운주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로부터 혜련의 집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김장로는 그를 불상한 친구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나 기실은 김장로의 은인의 아들이엇다. 아편셀넌목사가 처음으로 정동에 학교를 세웟슬 때에 갓 쓰고 중추막 입고 댕기떤 학생중에는 벌서 반이상이 죽엇지마는 조선에서는 이름 잇는 사람이 여러 사람 나서 그중에는 김장로도 한 사람이오 설운주의 아버지 설래영(薛來泳)도 한 사람이엇다. 그 때에는 설래영은 시골서온, 사람이엇지마는 집에 재산이 잇고 또 열정가가 되어서 학비 업는 친구를 여러 사람 도와주엇다. 김장로도 그의 도옴을 바든 사람 중에 하나엿다. 그러나 김장로는 일즉 한번도 자긔가 누구의 도옴을 바덧다는말을 한 일이 업고 마치 자긔는 예로부터 지금과 가튼부자인것 가티 말하엿다. 설래영의 말이나면,

『그 사람, 시굴서 망건 하나 바로 쓸줄 모르고 올라오더니. 사투리는 지독하고. 그래도 재주는 잇서서. 말을 잘하고』 할뿐이엇다.

설래영이 독립협회로, 학교 창설로 돌아다니다가 재산 다 업세하고 나종에는 길림에서 종을 마저죽게 되자 그 부인은 아들 하나를 다리고 서울에 돌아와서 어느 녀학교 긔숙사에 식모노릇을 하면서 아들을 보통학교에를 보내엇다. 그러나 운주가 보통학교를 졸업하는것을 다 못 보고 운주의 어머니는 장질부사에 걸려 순화병원에서 죽고 운주 혼자만남은 것을 김장로가 다려다가 가게에 심부름을 시키면서 야학으로 상업학교를 마초게 하고 인해점원으로 쓰게되엇든것이엇다.

운주는 그 아버지 달머서 재주도 잇고 언변도 잇섯다. 그리고 제가 보는일에 대한 책임감도 잇섯다. 그러나 운주도 김장로 집일을 보는지가 벌서 십여년이언마는 월급이라고는 몃번 올랏다는것이 겨우 사십원. 그런데 나히는 벌서 스물다섯. 남이보기에는 김장로의 신임을 바다서 마치 이 상점지배인 격인 것 가티 생각하지마는 속으로는 저금한푼 할수업고. 그러타고 김장로라는 위인을 차차알아오고 보니 여긔 수십년을 노력을 한댓자 나종에 독립하야 상업을 경영할 밋천을 줄것갓지도 아니 하고―게다가 김장로 하나 덜컥죽고 나면 부랑자 종관(鍾寬)이가 이 재산을 메줄이나 지킬는지도 모를 일―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본래 민감한 운주는 근래에 마음에 불평과 근심이 떠나지를 아니하엿다.

그러면서도 운주의 마음에 나날이 뿌리가 깁허지는것은 주인의 딸 혜련에게 대한 애모하는 생각.

『그는 주인의 딸, 나는 그집 고용인―』

이러케 생각하면 이것은 마치 하늘에 별을 따기를 바라는것과 다름이 업시 절망적이어지마는 그래도―그럿사록에 더욱 사랑의 뿌리가 깁허지는 것이 인정의 자연이다.

혜련이가 아직 열살이 될락 말락할때에 학교에서 원족을 가게되면 운주는 혜련의 점심을 들고 따라간 일도 잇섯고, 원족에 돌아오는 길에는 다리가 아파하는 혜련의 손을 잡아 끌어주기도 하엿다. 혜련은 어린 마음에 운주를 행랑 아이가 다름 업시 눈아래로 보는 버릇이 잇섯지 마는 그래도 한번 두번 혜련이가 모를 학교 숙제도 가르처주고, 할 때에는 혜련은 운주를 저와 가튼 동무로 대접하는 일도 잇섯다. 나이는 오년 차이지마는 이십전에는 오년이나 큰 차이가 아닌가.

혜련이가 십사오세가 되어서 고등보통학교에를 다닐 때에도 혹은 돈을타러, 혹은 아버지가 보고십허서 거의 매일 상점에를 왓다. 혜련은 유난히도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랏든것이다. 혜련이가 상점에 오든 때면 운주하고도 이야기할 긔회가 잇섯다. 혹시 김장로가 출타하고 업든지 하면 혜련도상점에 안저서 허물업시 운주와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돌아오기를 기다렷다.

絶對全責任付, 不合返金換品自由
大産―大阪―市價의半額

定價 一圓의萬年筆五萬本進呈

◇靑年訓鍊總革靴◇ 上等黑總皮製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底―總革學生靴 耐久二個年以上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流行尖端總革 フレンチ型
フレンチ型編上靴 四圓二十錢
フレンチ型短靴 三圓七十錢
先エナメル付一足三十錢高

革靴大爆發的大景品付
高級紳士禮服用總革靴
短型靴 四圓五十錢 (ボタン付先總革エナメル付)
中學生專用指定革靴 深型靴 五圓五十錢 (十一文半까지同價)
女學生總革靴 大人一足 二圓七十錢 小人一足 二圓三十錢
晴雨經濟靴 金二圓 (化學의精華人巧의妙 最新發明)
晴雨經濟女學生靴 一足 一圓五十錢

革靴一足에萬年筆一本式進呈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井坂電停前)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電話東五二二一四(振替名古屋一七六)

各國의通貨膨脹
金本位動搖로急激化

[illegible]

軍需生産中心時代

[illegible]

金利去益低下趨勢

[illegible]

都市土地投資 投機傾向濃厚
銀行放慢貸出도一因
理財課서注意示達

低金利時代의 實施後 投資의方向이 늘것이 例임으로 都市의 土地는 一般生産業에 置重되리라는것은 누구나 想像할수 잇스나 朝鮮에서의 實面한 問題로보면 土地投資가 만흔것이 注目된다 則 談價高에 因한 田畓에對한 投資도 잇슬것이나 그보다는近年에 一般的으로 地價가 昂騰하는때에 新鐵道의敷設 港灣의 改修며 市街地計劃令發布後의都市經濟의 近代化等의 問題가크게 影響하여 各地의地價는 實際以上으로 投機的實質에依하야 더욱昂騰하고잇서 近年에 土地投資로 巨利를 본例도 許多한만큼 今後의 投資는 土地投機에더 旺盛할 氣勢이만라 大槪 都市附近의 土地는 各地方에 따라 事情이다르다고 하나 五六年 七八年內에는 倍乃至 量으로 投資를 全部投機라고는 볼수업스나 近年의 現象으로보면 確實히 全面的으로 投機化한것이 事實이다 이가린 土地投機가 盛行하는裏面에는 銀行等의 貸付가 理想的標準인 六割六分乃至 七割보다는 늘게八割乃至 九割의 貸出을하는 例도 잇서 土地投機를 어느程度까지 더助長식히는 바도잇음은 金融政策上으로도穩健한方途가 아닌점에더러 工場의新設, 勝致其他生産發展上에도不利한일이 만흠으로總督府理財課에서는 金融業者에對하야 이方面을 特히注意할바를再三示達하고잇다 이에對한 銀行方面의見解는 土地貸付는 七割程度이라하나 事實은 土地에依한貸出은 八、九割로 看做되고잇다

北朝鮮米油等 各其 資本金百萬圓의 販賣會社를 設立하기로 되엇다한다

府內倉庫在荷減

京城手形交換所調査=四月中의 京城府內倉庫의 貨物出入情況은 今月入庫 [illegible] 今月出庫 [illegible]로 月末現在在庫는 十二萬八千四百四十九個 三百十一萬九千二百九十二圓、前月에 比하야 一萬八千七百十七個、二十八萬六千九百五十九圓의 減少이다。

品品	月末現在高 個數	評價格
正租	[illegible]	[illegible]
玄米	[illegible]	[illegible]
白米	[illegible]	[illegible]
糯米	[illegible]	[illegible]
麥	[illegible]	[illegible]
粟	[illegible]	[illegible]
大豆	[illegible]	[illegible]
小豆	[illegible]	[illegible]
雜穀	[illegible]	[illegible]
麥粉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日本酒	[illegible]	[illegible]
麥酒	[illegible]	[illegible]
綿織物	[illegible]	[illegible]
絹織物	[illegible]	[illegible]
麻織物	[illegible]	[illegible]
毛織物	[illegible]	[illegible]
洋紙	[illegible]	[illegible]
其他紙類	[illegible]	[illegible]
金屬製品	[illegible]	[illegible]
藥種染料	[illegible]	[illegible]
食糧品	[illegible]	[illegible]
海産物	[illegible]	[illegible]
乾繭	[illegible]	[illegible]
肥料	[illegible]	[illegible]
其他雜品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東拓收納正租
大部分은賣却

東拓京城支店의 上半期의 收納正租賣却은 殘存所持 正租三萬石中 二萬石인데 其中九割까지는 七月中에賣却濟인바 賣却價는 八錢八、九厘로 曾有의高價이엇다한다

『골드·럿슈』 全世界風靡
注目되는蘇聯飛躍

産金熱은 日本에限한것이 아니오 全世界를通하야 골드럿슈時代를 示現코잇스니 이제世界産金趨勢를보면 一九三五年度의 世界産金額은 約三千萬온스의 異常한 發展을 示한바 이것을一九二九年에 比較하면 約五割의 增加이다 그러나 이것은 大部分 南阿聯邦以外의 金鑛增産이 主因이되는것으로 同地는 一九二九年以來 겨우 二千九萬四千온스의增加를하데 不過하나 低下에依한 今後 五、六年間에는 南阿의 産金額은 年産 一千五百萬온스를 突破할 豫想이라한다 蘇聯의 産金額은 第二次五個年計劃의 進行과아울러 飛躍的進步를하야 一九三四年에는 加奈陀、米國을 凌駕하야 世界第二의 産金國으로되엇는바 蘇聯의 發表에依하면 一九三六年末 까지는 年額 一千萬온스以上의 生産이 確實타한다 萬若이發表가 實現된다면 世界産金額은 他國을現狀대로두어 增減이 업다드래도 그年産額은 可驚할發表를 示할것으로 一九四○年에는 三千萬온스를突破할것으로보이어 一九三五年의 二千萬온스에比하면 激增이오 一八五○年의 三百五十萬온스에比하면 今昔의感이깁게 될것이다。

移出港在米
百六十五萬石
比前年同期十一萬石增

全鮮主要移出港의 十日現在 在米高는 百六十五萬千八百六十七石(政府米를包含)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十一萬五千九百五十石 增加前月보다 三萬千六百六十六石減少이다 (單位石)

日本內地米	一、五九九
正租	五五九、六五八
玄米	一、○二五、七六三
白米	六○、二五三
糯米	四、五九二

그리고 各港別은 如左하다

港	品	數量
▲釜山	正租	七、九一四
	玄米	一八九、五四四
	白米	二四、六七三
	糯米	四八
	計	二二二、一七九
▲馬山	正租	一九、四三五
	玄米	二三、七九○
	白米	四、九八○
	計	四八、二○五
▲麗水	正租	一三、四四九
	玄米	二三、六七○
	白米	一、九二五
	計	三九、○四四
▲木浦	正租	二九、四七○
	玄米	一○八、七一一
	白米	二三○
	計	一三八、四一一
▲群山	正租	三四、一七四
	玄米	二○○、八八八
	白米	五、七○七
	計	二四○、七七○
▲江景	正租	一三、一五三
	玄米	一九、八○六
	白米	四四○
	計	三三、三九九
▲仁川	日本內地米	一、五九九
	正租	一三○、四八四
	玄米	一二八、五○八
	白米	二二八
	糯米	四、五四四
	計	二六五、三六四
▲鎭南浦	正租	一三三、六六八
	玄米	三二八、九一四
	白米	一八、二五○
	計	四八○、八三二
▲元山	正租	二、九一○
	玄米	一、九三一
	白米	三、八二○
	計	八、六六一

肥料業統制法案
無難通過는疑問視

【東京電】特別議會에 提案된重要肥料業統制法案은 衆議院의 空氣가 本法案은 肥料業者 擁護法案이라고 非難에 依하야 無修正通過가 至難視되다한다

米運賃問題 依然未決
荷主自主積取論

朝鮮米運賃의 改訂交涉은 前月以來 日本內地에서 荷主對船會社間에 隨時折衝을 하고잇는바 船會社側은 近海航路의 活況에依한 運賃、傭船料의 昂騰에 기운울어디 運賃引上을 積極的으로 策謀하고잇슴에對하야 荷主側은 運賃의 一元制協定을 中心으로 京濱、阪神荷主間에 意見의 對立이잇고 또 朝鮮內荷主도 運賃契約形態의 改訂問題와 關聯하야 步調가맞지안커 最近에는 一部荷主間에 荷主가傭船하야 自主積取의 擧에 出하려는傾向조차 擡頭하야 運賃의改正交涉은 目下로서는 五里霧中에잇서서 그曙光조차볼수업는 混亂狀態이다

中央米油創立
資本金百萬圓

從來소코니-나바큠코퍼리-의石油製品 取扱을 行하든 全朝鮮의 米油販賣組合은 今回組織의 販賣를 合理化하기爲하야 그를 株式組織으로 改正하고저 于先 中部朝鮮에서는 資本金百萬圓 四十萬圓拂込의 中央米油株式會社를 創立하야 本社를京城에 두고 支店을 仁川、群山、鳥致院、開城、大田、五個所에 置하기로되야 去五月一日 이미創立總會를 開催하얏는데 重役은 左하다

取締役社長 吉田秀次郎
取締役副社長 渡邊謙哉
(以下略)

그리고 同樣의 意味에서 南部(釜山)에 南朝鮮米油、西部(平壤)에 西朝鮮米油、北部(元山)에

"朝臺米生産制限 斷行할意思없다"
朝鮮은도리어生産不足狀態
農拓兩相自管案委員會서答辯

【東京電話】十三日 衆議院米穀自治管理法案委員會는 午前九時二十五分에 開會되야 平野力三(第二控室)、內藤(民政)、永山忠則(昭和)의 諸氏로부터 各其質問이잇슨後三宅正一氏(社大)는 外地米生産統制를 斷行할 意思는업는가

島田農相 米國民는人口食糧問題의 見地에서 考慮하지안흘면안될것으로 生産制限을 斷行함은 不可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情勢에 依하야는 依然을 [illegible] 必要는잇을것이다

永田拓相 島田農相과 全然同一한意見이다 例컨대 朝鮮과 如함은二千萬의 人口가잇는데 米의 生産高는 一千七百萬石으로 日本內地의 率로 比較하야보면 決코 過剩한 生産은아니다 그래서 生産制限을 行할意思는업다

고 兩相이 生産制限斷行의 意思가업스믈 明瞭히말하얏다 따을 三宅氏는 自治管理法案의 本質問에드러가 本法案은 中小農의 救濟策이아니라고 斷言하고

三宅氏 小農의 青田賣의 防止를 米穀政策에 依하야 救濟할수업는가

島田農相 그點에對하야는 米穀政策以外에 別方途를 講究할수밧게업다

小作農生産者로 青田賣의 防止에 對하야는 要컨대 小農의 金融政策을 行하는外에 方法이업다 이點에對하야 相當考究하고잇다

三宅氏 糧米債權救濟를 하기爲하야 米穀統制法中에 交付米制度를 設할 意思는업는가

島田農相 無償交付라는點은 考慮할 要는업을이다 그리고統制法에 이項目을 挿入하는것은 困難하다고 생각한다 下나 貸付의 手續이 簡易化되엇다 되야 速히 地方에 配付케되면 農民에게 조흘줄 생각한다

三宅氏는 다시 小農政策을 强調하야 自治管理法案의 運用上 希望을 羅列하고 質問을 맛치고 正午休憩 午後一時半 再開

二百郡島에 米穀統制組合
朝鮮도自治管理準備

自治管理案이 通過되면 朝鮮에서도 二百郡島에서 各히 米穀統制組合의 新設을 보게되어 잇슴으로 이미 勅令事項、命令事項、組合定款의 各般에 亘하야 農産課에서 研究를 進行하고잇는바 이에 問題되는것은 組合員의 資格限度로 當局에서도 愼重을 期하고잇다

日本內地에서는 組合員을 內의 小作農一町步以上 自作五反步以上으로하고 地主도 五石收納以上으로 하고잇는데 朝鮮에서는 農業事情이 다름으로 一律로 할수업고 一律로하면 管理成績에도 影響될것임으로 研究中이라한다

經濟界消息

○鮮滿拓殖委員決定=鮮滿拓殖株式會社의 創立準備委員會의 總督府側委員은 如左히 內定을보앗다

準備委員長 渡邊農林局長▲委員 田中武雄(警務局長) 穗積眞六郎(殖産局長) 相川勝六(外事課長) 高尾甚造(事務官) 山澤和三郎(農産課長) 楊在河 福島四雄(以上外事課) 山本善己(農林局技師) 鈴川壽男(林政課長) 中津川小作官(京畿道)

그리고 關東軍、滿鐵、殖銀、朝銀도 大體內定되어 第一回準備委員會는十四日開催할 豫定이다 同社는 四名의 理事가 設置되야 其中一名은 京城本社에 他二名은 新京支社(鮮滿拓殖公司)에 常駐되는데 理事는 總務部長 事業部長을 兼任하기로되엇다

○全國手形交換所聯合會=全國手形交換所聯合總會는 六月五日、東京手形交換所에서 開催되는데 當日 總會席上 理事長森廣藏氏는 時局重大의 此際 金融業者의 代表的意見을 말할것으로 자못 期待된다는 言가 某銀行支店에 入電되엇다

朝鮮人 米消費量 僅少는 民族盛衰에 依한것이라는 狂言을 吐하던 永田拓相

○

오늘委員會서는 朝鮮은 人口로보아 千七百萬石 收穫은 生産不足이라고 答辯

○

며칠동안에 精神이 좀 낫모양인가

○

獨占會社 朝石에 對抗할 세움인지 米油販賣會社가 各道에 百萬圓으로 全朝鮮에 네곳에나 생기리라고 싸워보라

今日財界 (十三日)

[illegible]

商況【十三日】

株式 極閑後에 上進

前場寂寞 場面은 去益閑散하야 今前場은 全然傍觀的休商同樣이엇스니 東新百三十三圓九十錢 日産七十二圓二、三十錢 鐘新二十七圓四十錢이잇섯다

後場上進 後場은歐洲政局紛擾懷想으로 上進하야 東新百三十五圓二十錢 日産七十三圓 大新七十五圓二十錢 鐘新百五十圓九十錢에올랏다

不動하는理由
局面展開期待

産金買上價大幅引上을 動機로한 賣方의 踏物이 一巡된데다가 議會로부터 受하는 新內閣의 無力에의 失望的、不安人氣를 起케 하는傾向이잇고 佛蘭西의 金本位動搖로 그影響을걱정케되어 市勢는 다시保合에入하야 今前場은 大閑散休商同樣이엇는데 二·二六事件이란 重大事變을 經過하야 떠러질대로 떠러진今日의市勢를 買入하는 國家悲觀的實人氣라야할것임으로 그런것을 期할은 一考를 要할것이라는 論도잇는터이다。市勢는 事變에依하야 當時의 買玉을 投退와 解合에依하야 大整理하고나서 雜株는 採算에依하야 充分히 檢討되엇스며 投機株는 時局의認識을하야 低位에陷한터이니 市勢로서는回復의順序라할수잇고 지금은 局面打開를기다리고 잇을뿐이다

伊聯盟脫退豫想 後場飜然活氣

【大阪電話】今前場은 市場氣乘薄散商狀動擬待이오 人絹株는 大減配市 實物出盡殺으로市勢는 [illegible]

期米 傍觀後에 昂高

前場膠着 昨後場阪地卅三圓十一錢止와 共히卅圓八十錢에 場을 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卅三圓十錢인 一丁低落을繼하고 卅圓八十錢인 昨止同樣으로 場을始한後 阪地十二錢까지 小戾하여다가 十一錢의 四番同價로 止場하을 伴하야前後八十錢의 六番同價와 四番買의 不成인未曾有의 閑散으로 場을止하엿다

後場昂高 後場은三十圓八十錢에 同價始場後 保合氣分하야 節節上向하야 結局九十二錢最高價에 止場하다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刺戟材料가업고 今場도 無氣力保合의 市況이엇다 (取引高三○萬)

甲五分利 一○○·七○
一回四分利 一○二·九○

實物前場取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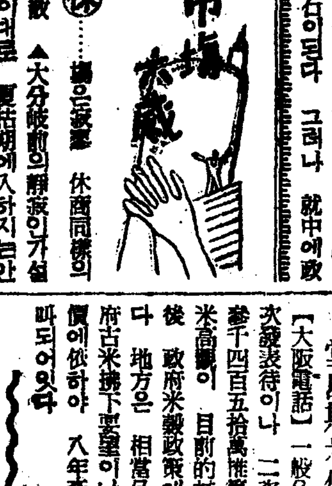
[illegible]

朝石拂込徵收

朝鮮石油에서는 十三日決算重役會를 開催한 結果 第二回拂込를 決定하야 一株에 對하야 十二圓五十錢을 七月十日徵收하기로 決定하얏다

總殘存米數量
三千五百萬石?

五月一日現在 日本內地 殘存米의 第二次發表는 北海道外十五地方의 分이 一千三百十四萬六千三百石으로 第一回分을 加算하면 二千五百三十七萬九千九百七十四石인데 此를 前年同期에 比하면 百四十九萬五千八百十二石의 減少이다 남어지 十四地方分의 發表가 마치 何如할지는 몰으나 同十四地方中 東京、大阪、京都等三府가 잇는데 此三府即 消費 [illegible]



米……三十圓八十錢 六節同價에 實質不成이 四節 이것이今前場의 仁川場▲이런閑散勝着은 무어을 暗示함인가? ▲殘存米發表를 苦待하더니發表가되는中인데도이모양 ▲올는자니 고개가놉허 허덕이고내리자니 供給不安으로勇氣가안나는까닭 ▲大阪三十五圓突破說도 한풀꺽긴모양? ▲그대신 下旬活躍說로歷安

前途需給一考
殘存發表보고

殘存米의 第二次發表는 아즉發表되지안햇스나 第二次까지의發表로보아서 三千五百萬石은 될것으로 滑破하고잇다 此三千五百萬石에 알수로의朝鮮米及臺灣米의 日本內地의 移入豫想을 加算하면 總三千九百萬石이될다 그러면 日本內地의 一個月間消費高를 五百五十萬石으로 假定하면 五月一日부터 來十月末까지의 六個月間總消費高이 三千三百萬石을 算하게되며 빼아서 來米穀年度의 持越高는 結局五百萬石이되다 그러나 就中에政府米가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不味 殘存米의全貌待로 取引이極度의閑散인 丸仁三等三十圓○五錢四等二十九圓七十五錢 一等白米二十二圓丁

仁川不變 繼續하야 期米採算側의 買氣가 잇는 程度로 市況은 極度의閑散에 陷하얏다 丸仁三等三十圓○五錢四等二十九圓七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釜山閑散 天候不良으로賣物이나마 地方注文杳無로市況은 極度의 不景氣閑散에 擁滲되어 僅히 當用小口賣買가 散見되는 程度에不滿하다 取引高는 四百六十七叺 角フ三等二十九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木浦軟調 產地는 아즉形勢傍觀인모양이오 實物을 내지안코나 買方의 滿傍觀人氣로取引은 거의 中絶된 狀態이다 氣配十錢低唱인 丸ホ三等三十圓三十錢 四等三十圓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群山不勢 實行이 絶한데다가 定期의 不活潑을 移하야 市內의 極히 活況에乏하나 天候不良도잇서 産地로부터의 賣物은 적어다 麥ク三等三十圓三十錢 四等二十九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十五錢

大邱保合 産地는 賣惜함으로 引繼지안으나 市中은 實需로 利殺하야 取引은 殆無하얏다 角フ三等二十九圓四十錢 四等二十九圓十錢 一等白米十二圓十五錢

堂島期米保合

【大阪電話】一般은 殘存米第三次發表待이나 二次發表로보아約參千四百五拾萬推算者가만코 在米高觀이 目前的材料가아니오今後 政府米穀政策에 留意하고잇다 地方은 相當品薄狀態로 政府古米拂下要望이나 他方最高米價에依하야 八年產米拂下가 絶따되어잇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海外經濟 (十二日) /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 金買入價 / 東京市中金融 / 京城市中金融 / 對外爲替 / 京城正米 / 仁川正米大豆 / 京城雜穀 / 京城綿布 / 京城綿糸布市況 / 朝鮮油脂 / 朝鮮粕 / 朝鮮水産 / 日本麥粉市況 / 滿洲商況 / 大連特産市況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 定期 / 東京短期 / 大阪短期 / 大阪長期 / 東京期米 / 大阪期米 / 朝取期米 / 朝鮮內各地期米 / 東京現株 / 各地正租市況 / 大阪正米 / 大阪市中正米高 / 日本各地期米 / 大阪綿糸 / 大阪棉花 / 大阪砂糖 / 各地人絹 / 橫濱生糸 / 海外砂糖

[illegible]

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朝取 株式 木光 東益商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金益證券株式會社 仁川府海岸町三丁目 代表電話本局② 五一八六番

朝取取引員 株式 期米 玉 柳來福商店 仁川府本町 電話